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8
vol.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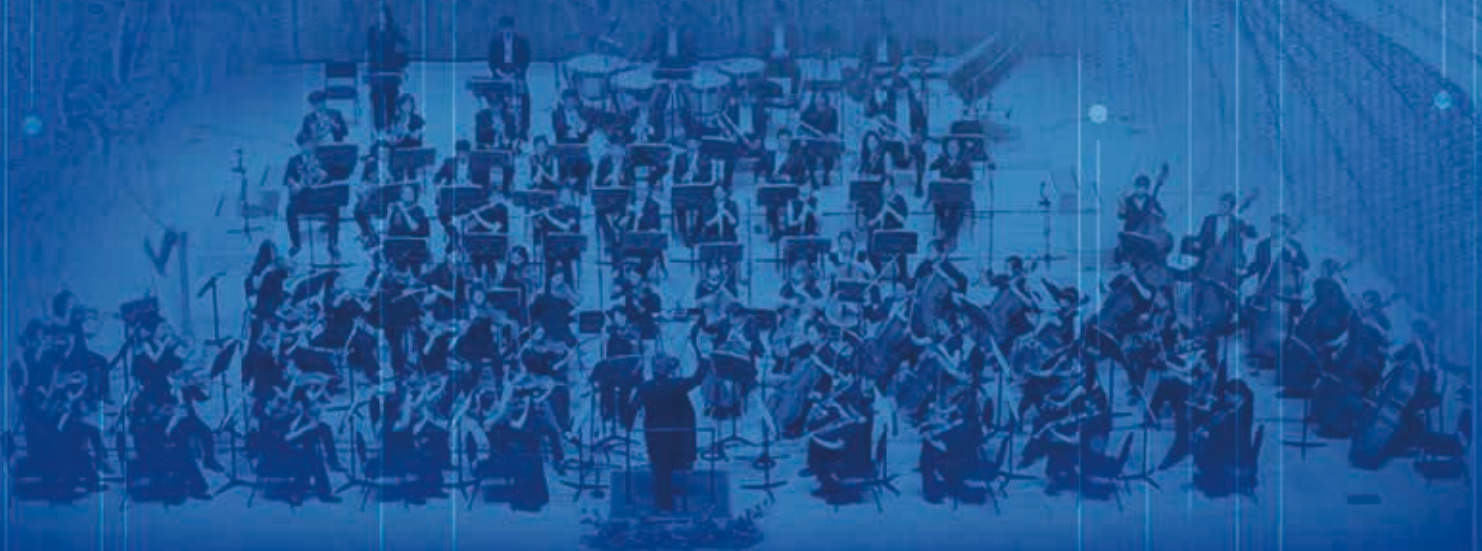
표지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세계의 공연장
제네바를 대표하는 두 극장
빅토리아홀, 그랑테아뜨르 제네바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7. 9. 12 Tue.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 후원 **Bⁿ** 대선주조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ELA
비엔스틸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BIPEX
(주)바이펙스

Bⁿ
DAESUN
대선주조(주)

Bⁿ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ⁿ
STEEL
비엔틸강(주)

| Program |

멘델스존 F. Mendelssohn	'루이 블라스' 서곡 작품95 Overture 'Ruy Blas' in c minor, Op.95
멘델스존 F. Mendelssohn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64 (플루트 편곡)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브루흐 M. Bruch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26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Op.26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작품64 Romeo and Juliet, Op.64



플루트 최나경

바이올린 김복소리



예술감독 오충근
연주 KNN방송교향악단

Bⁿ 비엔그림 • **대선** 은

예술을 사랑하며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지역출신 예술가를 적극 후원합니다.

• 문의 **KNN** 051-850-9568 • 입장권 전석 무료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Bⁿ BISCO
(주)비스코

Bⁿ AISCO
아이스코(주)

Bⁿ SNB
에스엔비(주)

Bⁿ USA
BN USA, Inc.

BK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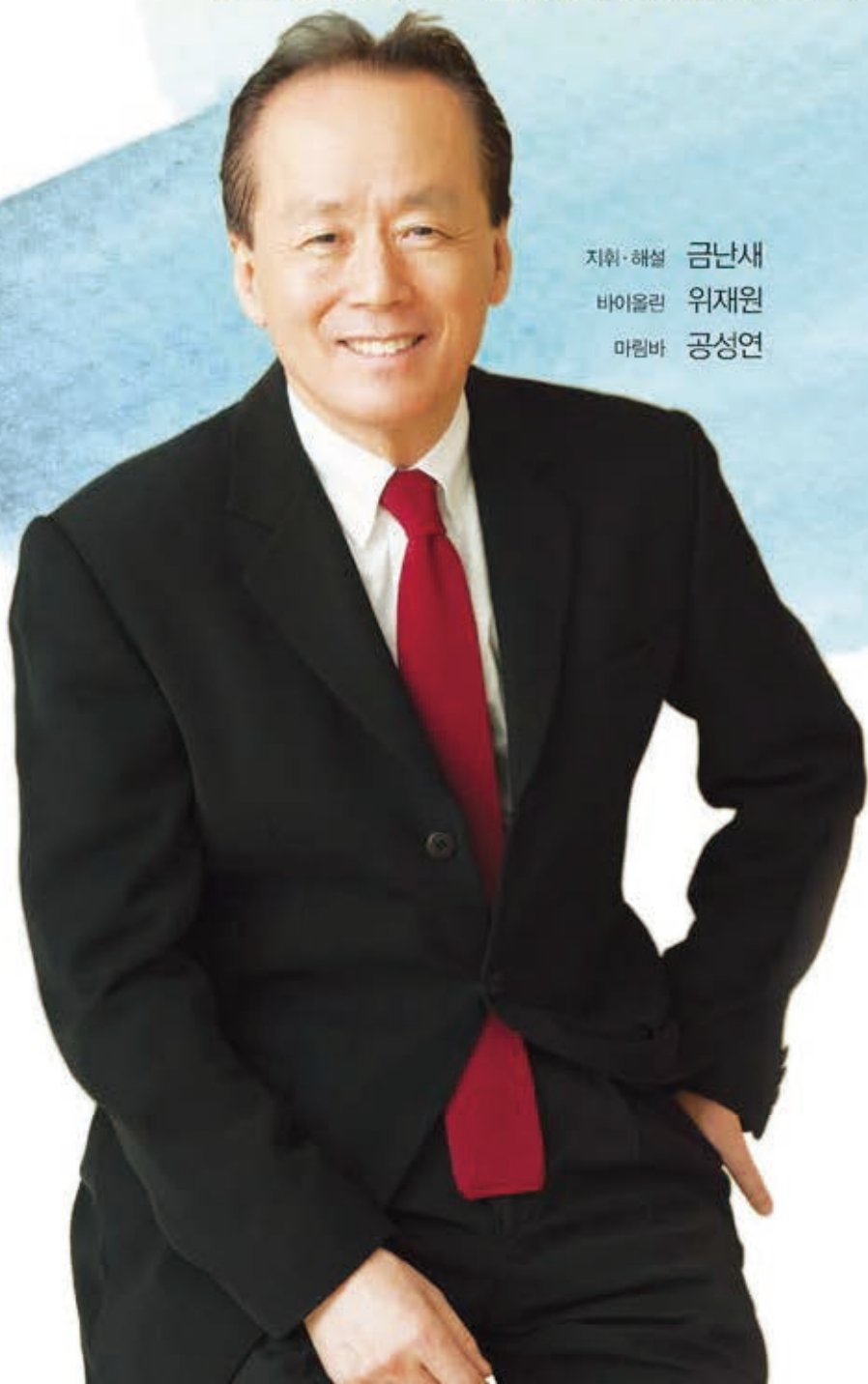
Bⁿ BAUM
바움크리에이티브(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해설 금난새
바이올린 위재원
마림바 공성연

Program

비제 「카르멘」 中
G. Bizet "Carmen"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P. d. Sarasate Carmen Fantasy

비발디 「사계」 中 "겨울"
A. Vivaldi 'L'inverno' from "Le quattro stagioni"

하차투리안 「가면 무도회」 모음곡 中
A. Khachaturian "Masquerada" Suite

2017. 8. 11 금
오전 11:00 ·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티켓 균일 10,000원
예매 www.bscc.or.kr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예체능동호회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5,000원권) ▶ 전화문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헌신獻身,
Beyond Playing

2017.

10. 31(화) 7:30 오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조기에매 할인

20%

8월 31일까지

베토벤 디아벨리 왈츠에 의한 33개의 변주곡/론도 C장조 리스트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의 회상 / 페트라르카 소네트 No.123 / 먹구름
L. v. Beethoven _ 33Variations on Diabelli Waltz in C Major, Op.120 / Rondo in C Major, Op.51-1
F. Liszt _ Reminiscences de Don Juan S.418 / Sonetto 123 del Petrarca / Nuages Gris S.199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www.interpark.com

1544-1555

입장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arts.com

SPECIAL +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08



16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제네바를 대표하는 두 극장
빅토리아홀,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



30

VIEW +

문화가 화제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부산의 가을을 연다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50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CULTURE +

- 12 8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스승과 지킨 10년만의 약속! '세빌리아 이발사 I'
- 16 세계의 공연장
제네바를 대표하는 두 극장 빅토리아홀, 그랑 떼아뜨르 제네바
- 20 축제 속으로 2017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 22 테마가 있는 여행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VIEW +

- 28 프리뷰
- 30 문화가 화제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부산의 가을을 연다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 36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48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0 부산문화회관 소식
- 54 SNS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17년 8월호 통권 30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8월 15일(화)~29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2만원(16일 부산아카데미앙상블 공연은 전석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관람료 할인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유료) 50%

스페셜 패키지티켓 5회 이상 동시예매 50%, 4회 동시예매 40%, 2~3회 동시예매 30%

초·중·고·대학생 본인 50% / 장애인 동반 1인까지 50%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50%

의사자 유족 본인 및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유료티켓 소지자 40%

문화예술인패스카드·문화누리카드(결제시) 본인 30% / 모범납세자 30% / 남구주민 20%

※공연당일 증빙서류 미지참 시 차액지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Busan Cultural Center Chamber Hall)이 오는 8월 개관한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이번 챔버홀 개관을 맞아 8월 15일부터 정통 실내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대향연이 펼쳐질 이번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여는 세계적인 명성의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클래식 애호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아 온 조이오브스트링스, 코리안 솔로이스츠, 그리고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비르투오조앙상블, 부산플루트앙상블, 앙상블코스모폴리탄,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원스트링챔버 등 부산지역의 실력있는 앙상블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아카데미앙상블 등 부산시립예술단까지 총 11개 단체가 참가,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페스티벌 첫날인 8월 15일에는 개막공연으로, 프랑스 최고의 챔버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가 내한연주회를 갖는다. 완벽한 음악적 해석과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세계무대에서 호평을 받아온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는 특히 2002년 11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통해 미국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2005년 국립미술관, 워싱턴 DC 공연에서 놀랄만한 연주를 선보이면서 워싱턴 포스트지로부터 “그들의 연주는 세련된 연주, 잘 익은 그리고 명쾌한 하모니가 번뜩였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의 주요 공연장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체코 등 유럽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활발한 연주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최초 내한공연에 이어 2015년에는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공연'으로 국내 투어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프리메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동준모의 지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튿날인 16일에는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음악가들의 특별무대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아카데미 앙상블이 무대에 선다. 이어 17일에는 지난 1962년 창단된 후 문화도시 부산의 긍지를 드높이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스트링과르넷, 브라스앙상블, 스트링앙상블이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소규모 실내악부터 오케스트라까지 폭넓은 연주 실력을 지닌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는 8월 18일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2007년 부산대학교 김동욱 교수를 음악감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홍은지, 홍지수, 조은비, 비올리스트 최영식, 이정환, 첼리스트 강윤선, 김경연, 피아니스트 탁영아 등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실내악, 솔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는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주도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그동안 신선하고 참신한 해석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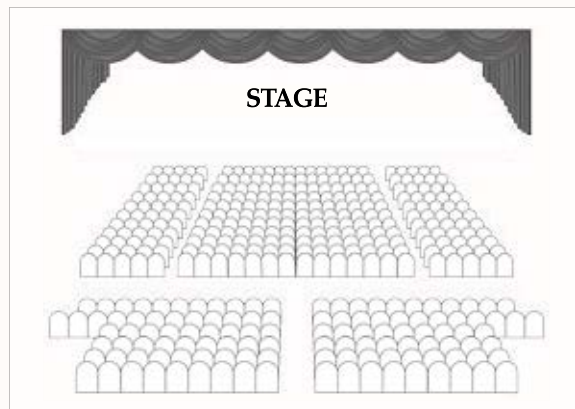
8월 19일 무대의 주인공은 부산지역에 실내악단체가 거의 전무하던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에 의해 피아노 트리오로 첫 발은 내딛은 후 지금까지 음악적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온 비르투오조 앙상블로, 현재는 리더인 백재진 교수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배수현, 조무중, 김유리, 비올리스트 김은진, 김민경, 첼리스트 박경숙, 김근해,

1년 365일 음악이 흐르는 클래식의 요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총 413석 규모의 실내악 전문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은 기존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에 자리한 국제회의장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국내 정상급 어쿠스틱 음향을 자랑한다. 특히 무대를 감싸고 있는 음향반사판이 이룩한 공연장 분위기를 조성,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와 연주자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오디토리움(관객석)을 제공하면서 음향과 시야 모든 면에서 연주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챔버홀 건립은 그동안 지역음악계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가진 여론수렴에서 부산문화회관의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사항으로, 지난해 음향 및 시설 전문가의 현장답사와 자문을 거쳐 올해 5월 공사에 착공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좌석배치도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피아니스트 권준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브람스 서거 120주년을 맞아 '브람스의 회상'이라는 부제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 비르투오조앙상블은 원숙한 작곡 기법과 절제된 음악성으로 내면의 깊이를 이끌어내는 브람스의 음악세계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재조명해본다.

8월 20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플루트앙상블로 꼽히는 부산플루트앙상블이 무대에 선다. 플루티스트 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길명훈, 유주영, 장예지, 김하나, 장정림, 피아니스트 이은정 등 부산의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플루트앙상블은 지난 1992년 1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기연주회를 비롯 해외초청연주회,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초·중·고·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을 창단하면서 클래식 저변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0년 첼리스트 이일세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결성된 후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앙상블코스모폴리탄은 8월 22일 관객과 만난다. 현재 음악감독인 이일세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송범석, 성기쁨, 박완서, 비올리스트 김명복, 천재현, 신요한, 첼리스트 이경성, 베이스리스트 김영호, 첼발로 주자 강수근이 활동하고 있으며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연주해오고 있다. 특히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과 잘 연주되지 않는 작품들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해온 앙상블코스모폴리탄은 이번 무대에서 '바흐, 그리고 텔레만'이라는 부제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들려준다.

8월 25일에는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과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음악으로 공유하는 삶, 그 멋진 삶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기 위해 모인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함께'와 '공유'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이끄는 조이오브스트링스는 8월 26일 무대에 선다. 지난 1997년 이성주 교수가 창단한 현악앙상블인 조이오브스트링스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초청공연을 통해 뛰어난 음악적 기량과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 깊이 있는 음악으로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1977년 뉴욕 카프만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이라는 부제로, 바로크 시대의 걸작과 함께 GRE 기타와 르넳과의 앙상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독특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견고한 실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비올리스트 이정일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젊고 열정적인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원스트링챔버는 8월 28일 관객들을 찾아간다. 악보에 충실한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통해 앙상블의 진수를 보여주는 원스트링챔버는 현악기만의 아름답고 우아한 소리와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8월 29일, 화려했던 개관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주인공은 코리안 솔로이스츠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998년 10월 창단 이후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국내 유수의 공연장 기획공연은 물론 청주, 부산, 마산, 순천, 광주 등 지방순회연주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던 코리안 솔로이스츠는 지난해 재창단을 통해 차세대 실력파 연주자들을 영입, 새로운 챔버앙상블이 빛어내는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 동시에 관객과의 나눔, 공감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질적인 성장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일 정

8월 15일(화) 오후 5:00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8월 22일(화) 오후 7:30	앙상블코스모폴리탄 '바흐, 그리고 텔레만'
8월 16일(수) 오후 7:30	부산아카데미앙상블(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8월 25일(금) 오후 7:30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8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8월 26일(토) 오후 5:00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8월 18일(금) 오후 7:30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8월 28일(월) 오후 7:30	원스트링챔버
8월 19일(토) 오후 5:00	비르투오조앙상블 '브람스의 회상'	8월 29일(화) 오후 7:30	코리안 솔로이스츠
8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플루트앙상블		

08

2017 AUG

12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SUN	MON	TUE
		1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어린이 예술교육 체험전 '모래랑 빛이랑' 7월 7일(금)~8월 27일(일) ※월요일 휴관 입장료 : 평일 1만3천원, 주말 1만3천원 (10명 이상 단체 1만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1899-8418		
6	7	8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15:0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14	15
대 제35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9: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10:00 부산광역시청(888-1854) 캠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21	22
캠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부산플루트앙상블'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캠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앙상블 코스모폴리탄_ 바흐, 그리고 텔레만'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28	29
대 제35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9: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캠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원스트링챔버'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캠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코리아안 솔로이스츠'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WED	THU	FRI	SAT
2	3	4	5
			대 브니엘 무용 예술제 19:00 무료 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
9	10	11	12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19:3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11:00, 16:0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대 제35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9: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16	17	18	19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부산시립청소년교 향악단 부산아카데미앙상블' 19:30 전석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부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비르투오조앙상블_브람스의 회상'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24	25	26
		대 제8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3人 3色 콘서트'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1600-1803)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31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Free Crying Concert - 엄마랑 아기랑 껌딱지 음악회' 11:00 전석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부산 청소년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30 초대 장극태(010-3582-5189)		※ 토요일상설무대는 어린이전용극장 조성공사로 당분간 쉽니다.

스승과 지킨 10년만의 약속!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Barbiere di Siviglia* I



2005년 봄, 귀국을 결심하고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오페라 연출자이자 나의 스승인 프랑코 바키(Franco Vacchi, 1927-2008)를 찾아뵙는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 왜 들어가느냐 꾸지람과 동시에 그러나 가서 분명히 잘해나갈 거라는 격려, 그리고 이태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2001년, 오페라 연출을 공부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결심하고 정착한 후 어렵게 밀라노 아르세날레(Arsenale) 연극원에 들어가 수학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프랑코 바키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의 제안에 나는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고 그에게로 갔다.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자 밀라노 스칼라 극장의 연출가 루키노 비스콘티(Lucchino Visconti, 1906-1976)의 계보로 제노바 극장에서 9년간 상임연출가로 활동한 바키 선생님과 첫 레슨 시간, 3시간 넘게 오페라 ‘아이다’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응답, 음악 및 대본 분석 등 연출의 기본이 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생생한 대화를 통해 생동감마저 넘쳤던 그 학습시간은 마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길잡이처럼 내겐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오페라 세계로의 진입이었다. 그날 나는 얼마 되지 않는 레슨비를 드리려 했으나 극구 사양하며 “앞으로 내게 남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주고 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며 곧바로 다음달부터는 직접 무대에서 경험하자며 내게 일자리를 주셨다.

‘이런 행운이 내게 오다니!’ 그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스승은 내게, 특히 연출가는 오페라에서 제왕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사람 중 하나로, 늘 수평적인 관계로 여타 다른 성악가와 스텝 한사람 한사람 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라고 가르쳤다. 그 가르침 아래 열심히 일한 결과 더 많은 신임을 얻으며 차근차근 본고장 무대를 습득할 수 있었다. 서른을 갓 넘긴 동양인에게 유수의 극장에서 협력연출까지 하는 기회까지 생겼으나 스승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나를 본고장에서 연출가로 데뷔시키고자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충분한 실전 경험을 맛보게 해준 스승님께 그 일의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늘 감사했다.



베르첼리 자택으로 사모님께 드릴 꽃과 케이크를 들고 귀국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날 내게 “내가 널 이탈리아에서 데뷔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의주, 네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된다면 결코 여행으로 오지 말고, 꼭 네 작품으로 들고 와야 한다.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 전에는 오면 안된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시면서 “나는 네가 꼭 나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 주리라 믿고 기도할 것이다”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나는 그날 ‘아이쿠! 이탈리아에 다시 놀러오긴 다 글렀네!’ 하며 속으로 웃었다. 동양인인 내가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연출을 하게 된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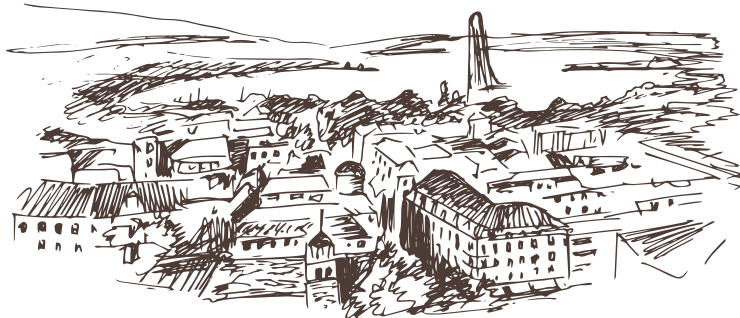
2015년 5월 햇살 가득한 날, 나는 베르첼리 시립묘원에 스승님께 인사드리고 있다. 로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슴 속 무엇인가에 이끌려 1천 킬로나 되는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다. 사모님과 ‘꼭 작품 들고 오라’는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6월초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던 기일이 막상 비석을 보니 남부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그토록 바랬던 당신의 제자 의주가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데뷔하는 그날이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다. 그냥 마구 마구 흐르기 시작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이후 하염없이 흐르던 그 눈물을 간직한 채 나는 냉정하게 작품에 온 집중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 극장장으로 있을뿐 아니라 콧대 높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곳 살레르노에서 정통 희극작품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사람이 부산문화회관에서 판소리 ‘흥부전’을 공연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무대, 의상, 조명, 분장 등 메이드 인 이의주 표 오페라가 관객들의 엄청난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끝나고 유럽 유수의 매니지먼트사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3회의 공연이 모두 끝난 날 늦은 저녁, 살레르노가 다 보이는 앞산 고성에서 전경을 바라보며 그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바로 그때, 10년 전 내게 하셨던 말씀 중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말이 떠올랐다. “의주! 네가 이탈리아 극장에 데뷔하게 되면 분명 온 유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나의 자랑스런 제자야…!”

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마에스트로!



GENEVA



제네바를 대표하는 두 극장

빅토리아홀, 그랑 떤아뜨르 제네바

16

너무나 아름다운 콘서트홀, 빅토리아홀 *Victoria Hall*

누군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공연장을 묻는다면, 아마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 비엔나의 뮤직페라인 그리고 제네바의 빅토리아홀을 손꼽을 것 같다. 1853년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초연한 라 페니체 극장, 해마다 신년이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뉴 이어콘서트가 열리는 뮤직페라인에 비해 제네바의 빅토리아홀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에스트로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이끄는 명문 오케스트라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홈 그라운드가 바로 오늘 이야기 할 공연장 빅토리아홀이다.



빅토리아홀

스위스 제네바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빅토리아홀. 그 외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평범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건축가 존 케몰레티에 의해 설계된 빅토리아홀은 1891년 시작하여 3년 뒤 완공되었는데, 홀의 이름은 당시의 제네바 주재 영국 영사 다니엘 피츠제럴드가 본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정하는 뜻에서 지었고, 실제로 건축 자금은 영국이 융자해주기도 했다.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누구인가. 재임 시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Great Britain)의 최전성기 때가 아닌가.

처음 빅토리아홀을 방문하였을 때가 생각난다. 사실 그랑 떤아뜨르 제네바에서 오페라 '로젠 카발리에'를 보기 위해 제네바를 찾았었고, 인터미션 시간 잠시 공연장 바깥을 거닐다가 빅토리아홀을 보게 되었다. 건축물 파사드에는 헨델, 바흐, 멘델스존, 모차르트, 슈만, 하이든, 바그너, 리스트, 베토벤, 베를리오즈, 슈베르트 등 서양음악사의 대표 작



1,2,3 빅토리아홀
4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의 빅토리아홀 공연장면

곡가의 이름이 적혀있었기에 누가봐도 클래식 공연장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이끼림에서였는지 1막을 보고 나온 오페라는 뒤로 한 채 빅토리아홀에서 다시 발권하고 들어가 본 공연이 베르디의 ‘레퀴엠’이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빅토리아홀 그 자체였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건물 외관에서 보듯이 빅토리아홀은 3층의 박스형 객석을 가지고 있다. 그리 넓지 않은 로비에서 한 층 올라가면 공연장 내부에 다르는데, 붉은 대리석과 금빛으로 치장된 장식, 멋스러운 파이프 오르간을 중앙에 둔 무대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황금홀(Goldner Saal)이라 일컫는 빈의 뮤직페라인에 못지 않다.

공연장 내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객석수는 1,500석에서 하나 모자라는 1,499석이다. 파테어(Parterre)라 불리는 바닥 층에 701석, 1층 갤러리에 289석, 그리고 2층 갤러리에 201석이 있지만 공연에 따라 합창석이라 불리는 포디움석(Podium)이 110석 추가될 수 있다. 실제로 첫 방문 당시 본 공연인 베르디의 ‘레퀴엠’ 역시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같이 오르는 대형 편성의 무대였다. 아마 부지의 형태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긴 직사각형의 내부는 여타의 공연장보다 작게 느껴졌던 것 같다. 예상하지 못했던 조우여서인지 다른 어

떤 콘서트홀보다 빅토리아홀은 꽤 오래 기억이 남았다.

외국에서 공연을 볼 때면 어김없이 두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연주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웹사이트를 찾아보거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식 사이트를 검색해보는 방법이다. 아마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는 필하모니아홀(Philharmonie)에서의 정기연주 일정과 해외투어 공연일정이 함께 검색되어 나올 것이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검색하면 역시 바비칸센터(Barbican Center)에서의 정기공연 일정과 해외투어 공연 일정이 나온다. 하지만 필하모니아홀은 때때로 베를린 슈타츠오퍼가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초청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바비칸센터 역시 LSO 런던심포니가 상주해 있지만,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역시 전용홀로 쓰고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공연장을 검색해보는 방법일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빈의 뮤직페라인의 경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지만 실제 뮤직페라인을 검색하면, 여타 초청 오케스트라의 연주일정이 오히려 더 많이 검색되어 나온다. 역시 빅토리아홀의 일정을 검색하게 되면 상주단체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일정을 포함해서 제네바를 찾은 여타의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방문하는 공연장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상주단체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비교적 연주 횟수가 많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같은 경우는 한두 주에 걸쳐서 필하모니아홀에서 만날 수 있기에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두 차례 밖에 없는 상주단체의 정기연주회 일정을 맞추기는 어렵다.

두 번째 찾은 빅토리아홀에서의 연주도 그러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나고 싶었지만 지난달 제네바를 찾았을 때 머무르는 날짜에 맞는 공연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이었다. 상임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경이 지휘를 하고 중국계 피아니스트 유자 왕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과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빅토리아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요즘 주가가 높은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은 손색이 없었다.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의 하모니 역시 빅토리아홀의 긴 직사각형 공연장 내부를 가득 메워주었다. 스위스까지 가서 웬 이탈리아 교향악단이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상주단체의 공연을 해당 연주회장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빅토리아홀에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나고 싶다.

그랑 떤아뜨르 제네바 *Grand Theatre Geneva*

불어권 도시를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은 먼저 파리의 바스티유와 가르니에극장이 있을 것이다. 물론 프랑스의 여타 주요 도시들 대부분이 오페라극장을 가지고 있지만 파리 다음으로는 리옹의 누벨 오페라 극장이 비교적 최근 건축가 장누벨에 의해 리노베이션되어 활발하게 오페라 무대가 올려진다. 하지만 이 도시의 그랑 떤아뜨르 제네바는 그리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당장에 스위스의 오페라극장을 이야기 하면 대개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와 그곳에서 열리는 오페라축제를 주로 이야기 하지, 제네바의 그랑 떤아뜨르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다. 물론 오페라라는 장르가 불어권보다는 독일어권에서 좀 더 성행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1,2 리노베이션 중인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
3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커튼콜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보면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의 오페라는 매 시즌 손색없는 오페라와 발레 무대를 보여준다. 당장에 캐스팅되는 오페라 가수의 면목만 봐도 그러하다. 처음 이 극장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오페라 '로젠 카발리에'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조피코흐가 캐스팅되어 있었다. 이들이 출연한 작품은 이후 영상물로 제작이 되었을만큼 전 유럽을 통틀어 최고의 캐스팅으로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는 리노베이션 중이다. 그래도 오페라 공연은 멈출 수 없기에 UN 유럽본부가 있는 곳 옆 광장에 로페라 데 네이션스(LOpera des Nations)라는 이름의 임시 오페라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에서 예약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로페라 데 네이션스에서 공연이 올라간다. 현재 베를린 국립가극장(Berlin Staatsoper)도 비슷한 상황이다. 예약은 베를린 슈타츠오페에서 하더라도 실제 공연은 실러극장에서 공연이 된다. 쾰른 오페라극장도 마찬가지이다. 자칫 관광객은 장소를 잘못 찾아가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목재로 지어진 임시 오페라극장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 부족한 법은 없다. 무대나 객석 심지어 오페라극장의 로비도 본래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만날 수 있었는데, 손색없는 수준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목재로 지어진 임시 오페라극장이라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는 오페라극장이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역시 오페라 프로젝트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되었다. 잘 만들어진 작품과 준비된 관객이 있는 이곳 제네바에서 임시 오페라극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네바. 스위스에서 취리히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레만호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UN의 유럽본부를 비롯해 국제적십자본부, 국제경제기구 등 22개의 국제기구와 25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가 이 곳에 위치해 있다. 제네바의 유엔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 외교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의들이 개최되고 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제네바라는 도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회자할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에는 그 어떤 콘서트홀보다도 아름다운 빅토리아홀과 충분히 불어권을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인 그랑 페아뜨르 제네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지면을 통해 꼭 밝히고 싶다.

놀다가 편다

2017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거리에서 펼쳐지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2017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8월 3일, 휴가철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하는 개막놀이를 시작으로 풍성한 축제의 장을 펼친다.

남도 예술의 멋과 신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글로벌 마당축제로 각광받고 있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4년 연속 선정되는가 하면 지난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정된 전국 대표축제 중 하나로 뽑히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예술축제로 성장해오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인 마당극 전문단체인 극단 갯돌이 주관하고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최하는 2017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의 슬로건은 '놀다가 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방문객에게 공연예술축제의 유쾌함을 제공,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붙인 슬로건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근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의 특별한 공간 7곳을 선정,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로컬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목포로컬스토리 7선'은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목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1918년 창건된 일본식 사찰로,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스님과 고은시인의 일화가 서린 정광정혜원에서는 '인연'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일화가 퍼포먼스, 춤, 낭송 등으로 꾸며지고 1925년 목포교회로 창립한 북교동교회의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교회 외벽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100년 전 목포로 그 배경을 옮겨 시민야외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 화가의 집(마당깊은 콘서트), 안저자거리(빈대떡 신사), 원도심 카페(난영따라 재즈로드), 오거리문화센터(기억프로젝트), 청년회관(독립영화) 등 특별한 의미가 담긴 7곳의 장소에서 콘서트, 퍼포먼스, 전시, 시낭송,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017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인 국내외 초청작 무대에서는 올해 미국, 태국, 캐나다, 몽골,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일본 등 해외 초청 8개국 13개팀과 국내 20개팀이 참가, 민속음악과 마임, 마당극, 풍물, 탈춤, 퓨전국악, 인형극, 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에딘버러축제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태국 극단 베이비 마임의 '코메디쇼'는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말로 표현하는 독특한 년버벌 마임무대로, 능숙하고 화려한 솜씨로 어린이처럼 맑

8월 3일(목)~6일(일) 목포 차안다니는 거리 및 원도심 일대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사무국 061-243-9786, www.mimaf.net



- 1,2 2016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 3 큰돌문화예술센터 '오작교 아리랑'
- 4 인형극단 부엉이곳간 '호랑이 뱃속 구경가유'
- 5 플레이밍 파이어 '태양의 조각'



고 밝은 웃음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마당극 전문극단인 큰돌문화예술센터의 '오작교 아리랑'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사는 두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마당극으로, 특히 일본 7개 도시 초청공연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담은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한예중 전통예술원 출신들로 구성된 전통창작그룹 이골림의 연희바라이어티쇼 '수상한 광대들'은 잊혀가는 남사당패의 모습을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관객과 함께 즐기는 무대이다. 이밖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인형극단 부엉이곳간의 인형극 '호랑이 뱃속 구경가유', 인형극을 통해 과학지식을 영동한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오정은의 테이블 인형극 '달달무슨달', 불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파이어 아트 퍼포먼스 그룹인 플레이밍 파이어의 특별한 파이어 댄스 퍼포먼스극 '태양의 조각' 등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예향남도 초청작'에서는 여수, 순천, 곡성, 무안, 신안, 진도 등 전남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해 남도의 멋과 신명을 전달하며, '마당아티스트 선발전'에서는 아마추어 길거리 예술가들의 치열한 경연이 펼쳐진다.

앞서 8월 3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지는 개막놀이 '육단아, 놀자'에서는 배우와 시민, 관광객들이 다같이 참가해 일제강점기 시절, 허드렛일과 물장수로 목포를 누비고 다녔던 목포의 명물 '육단아'로 변신, 다양한 춤과 노래로 길거리 퍼레이드를 펼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8월 6일 오후 9시부터는 폐막놀이 '고시레 파티'를 통해 축제의 성공을 자축하고 축제의 미래를 위해 기원하는 음복파티를 연다.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7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7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 테마여행지는 천년고찰 직지사가 자리한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로 이름난 직지사와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반곡포도마을에서 김천의 여름을 느껴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주령, 김미경 씨가 동행하면서 정기회원들의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특구지역인 김천 반곡포도마을. 마을 전체가 포도밭을 일구고 있는 반곡포도마을은 뛰어난 재배기술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재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에서부터 씨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에다 매혹적인 홍포도까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포도의 주산지이다. 특히 최근에는 근처 황악산과 직지사를 관광코스로 묶어 포도투어 이벤트를 열고 있어 해마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이 늘고 있다.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주민을 따라 본격적인 포도따기 체험에 나섰다.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가 회원들을 반긴다. 굵직굵직한 포도송이에 서너 송이만 따도 준비된 박스가 가득 찬다. 포도따기 체험을 마치고 마을에서 준비한 시식용 포도의 달콤한 향과 맛에 반한 회원들의 손과 입이 분주해진다. 반곡포도마을을 떠나기 전,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삼색포도터널과 오감만족 포도홍보관, 삼색포도체험농원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2



3



- 1 직지사
- 2 반곡포도마을 포도따기체험
- 3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아리랑 춤 배우기

햇볕을 피해 포도홍보관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주령, 김미경 씨의 지도로 '아리랑 춤 배우기'에 도전했다. 단원들의 섬세한 춤사위, 발디딤새 하나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하는 회원들의 열기에 시원하던 포도홍보관이 금세 뜨겁게 달아오른다.

오후 본격적인 직지사 탐방에 앞서 포도원액을 첨가한 향긋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들이 직지사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반갑게 맞았다. 신라 눌지왕 2년인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창건주인 아도화상이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을 '길상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붙였다는 설, 그리고 고려의 능여화상

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축지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져온다. 직지사는 위치적으로는 백두대간 황악산(黃岳山)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황악산(黃岳山)의 황자가 청(靑), 황(黃), 적(赤), 백(白), 흑(黑)의 5색(色) 중에서도 중앙색을 상징하는 글자라, 직지사는 예로부터 해동(海東)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으뜸가는 가람이라는 뜻에서 '동국제일가람(東國第一伽藍)'이라 불려왔다.

특히 직지사는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 유명한데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1735년 중건)을 비롯해 천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전(1661년 창건),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泗溟閣) 등이 남아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인 금동6각사리함과 보물인 석조 약사불좌상, 대웅전 앞 3층석탑 2기, 비로전 앞 3층석탑, 대웅전 삼존 불탱화 3폭 등이 있다. 한여름 뜨거운 별 아래에서도 회원가족들은 해설사의 설명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5



6

- 5,6 직지사
7,8 포도가공체험



7



8

직지사 탐방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김천의 특산품인 포도를 이용한 또 다른 웰빙체험을 위해 체험장이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는 포도를 이용한 가공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데, 포도 떡과 포도 스무디를 직접 만들어 시식해볼 수 있다. 회원들은 우선 체험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포도 떡 만들기에 도전했다. 미리 준비해둔 포도즙이 들어간 반죽을 밀대로 민 후 팔 앙금을 올리고 틀을 이용해 반달모양으로 찍어 주자 포도 송편이 완성됐다. 여기에 달콤한 포도즙과 우유, 얼음을 넣고 믹서기로 간 시원한 포도 스무디를 곁들여 맛있는 간식타임을 가졌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속에 포도향이 가득했던 김천 테마여행. 뜨거웠던 여름 햇살 속에서도 다양했던 볼거리, 체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의 여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부산녹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합천 정양늪 생태탐방



일정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정양늪 도착, 생명길 탐방
12:00	중식
13:00	농촌체험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5:00	합천박물관, 옥천고분군 관람
16:00	부산으로 출발

09.08 월

항강 지류 아천천의 배후습지로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합천 정양늪 생태탐방. 아늑한 습지를 따라 정양늪 생명길을 걷노라면 습지의 정화작용에 마음 속 티끌마저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08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해숙(연제구 해맞이로)
마수현(부산진구 백양산로)
박병진(사상구 엄궁북로)
심성아(금정구 금강로)
이연교(남구 용호로)
임영환(기장군 기장대로)
정정임(연제구 세병로)
진영규(양산시 고향의봄로)
최현영(창원시 천자로)
황보명춘(해운대구 반여로)

● 기존 회원

김태진(연제구 월드컵대로)
노현식(남구 동명로)
박명자(수영구 연수로)
박창열(남구 석포로)
신상수(사상구 양지로)
안선애(남구 황령대로)
정신자(남구 분포로)
정희주(남구 석포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하용진(수영구 수영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팔방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7. 8. 16(수)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사회/소리
오정해



부산시립합창단 중창팀



Tenor
최원갑



Soprano
남순천



Trumpet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소리
유태평양



전자바이올린
유진박



소리
이윤아



정구
민영치

PROGRAM

국악관현악 [소나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하는 시원한 음악이야기 [힘내라 맑은물, 해변으로 가요, 붉은 노을, 우정의 노래, 축배의 노래]

트럼펫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수궁가 中 토끼수궁에서 나오는 대목]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국악관현악 [차르다시, 고구려의 혼]

국악가요 [꽃분네야, 배 띄워라, 숙대머리, 사랑가]

설장구 협주곡 [오딧세이 (Odyssey) - 긴여행]

주최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10,000원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지휘 금난새



바이올린 위재원



마림바 조성연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2017년 무대가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 매년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가장 친근한 클래식 음악인으로 꼽히는 지휘자 금난새는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으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난새는 그동안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지난 1998년부터는 '벤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 마림비스트 공성연의 협연으로 청소년들의 필수 클래식 감상곡인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중 '전주곡'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하바네라', '꽃 노래', '간주곡', '집시의 노래'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작곡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곡 중 하나인 비발디 '사계' 중 '겨울',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민속적 정서가 짙은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모음곡' 중 '마주르카', '로망스', '갈럽' 등 세 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으로 관객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은 201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후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NUA 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평창 대관령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GMMF), The Wuhan Philharmonic Orchestra(금호문화재단 후원), New Russia State Symphony Orchestra, The University of Texas Symphony Orchestra와 협연무대를 갖는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공성연은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를 비롯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용인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서울대음대관악동문회가 주최하는 전국관악실기경연대회에서 1위에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일시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입장료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7년 무대가 8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국악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특히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영화 '서편제'의 히로인 오정해의 사회로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소리꾼 유태평양, 이연아, 작곡가 겸 국악연주가인 민영치,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과 함께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지난해 송년음악회에 이어 다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서는 오정해는 영화 '서편제'의 소리꾼 송화역으로 데뷔하면서 소리꾼으로서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창극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정해는 특히 지난 2004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즐거워라 무릉도원' 주역으로 부산의 국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하다.

첫 무대를 시원하게 열어줄 곡은 소나기의 빗방울과 강렬한 호우를 강렬한 국악리듬으로 표현한 민영치의 국악관현악곡 '소나기'. 재일교포 3세로, 세계적인 장구 연주가이기도 한 민영치는 그동안 클래식 및 대중음악과 국악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설장구 협연

자로도 이번 무대에 서는 민영치는 그의 자작곡이자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설장구 협주곡 '오뎃세이'를 직접 연주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과 함께하는 시원한 음악이야기로, 가요 및 오페라 아리아를 국악반주로 들려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주제곡을 국악관현악의 전통적인 장단을 활용, 트럼펫 협주곡으로 들려준다.

2010년 대한민국 인제대상, 2012 제28회 동아국악콩쿠르 금상을 수상한 국립창극단 단원 유태평양은 '수궁가' 중 '토끼 수궁에서 나오는 대목'을, 오정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국악가요 '꽃분네야, 배 띄워라', TV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2에 출연, 화제를 모았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판소리 상임단원 이연아는 출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쑥대머리'를 들려준다. 이어서는 유태평양과 이연아가 들려주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로 우리 소리의 멋과 신명을 전해준다. 최근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각종 방송과 영화, 드라마 등에 배경음악으로 쓰여 우리 귀에도 익숙한 몬티의 '차르다시'와 살풀이 장단을 바탕으로 신디사이저와 타악기가 웅장한 스케일로 어우러진 흥동기 곡 '고구려의 혼'을 유진박의 열정적인 연주로 들려준다.

일시 8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8월 1일,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제 22회 부산바다축제'를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부산에서는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풍성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부산을 넘어 전국의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바다축제와 역동적인 아시아 대표 록페스티벌로 사랑받고 있는 '부산국제록 페스티벌'에 이어 아시아 유일의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과 매년 여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사해온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다 속으로!

제22회 부산바다축제

8. 1(화)~8. 6(일) 부산시내 주요 해수욕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501-6051, www.bfo.or.kr

부산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해양종합관광축제인 '부산바다축제'는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후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부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피서객들에게도 많은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부산바다축제는 최근 들어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해수욕장별로 특성에 맞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운영되면서 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8월 1일 국내 최고의 휴가지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행사에서는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개막파티와 불꽃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2일과 3일에는 전국 최초로 개방형 특설무대와 대형 풀장, 워터 분사기가 설치되어 시원한 물놀이와 음악을 함께 즐기는 '물의 난장(Water Carnival)'과 '나이트 풀 파티(Night Pool Party)' 행사가 마련된다. '물의 난장(Water Carnival)'과 '나이트 풀 파티(Night Pool Party)'는 지난 2015년 개막행사로 첫 선을 보인 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축제기간 내내 음악으로 가득 찬다. 8월 2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DJ들의 경연대회 '2017 BeFM Expat DJ Contest'가 열리며 3일에는 사전 UCC 예선을 통과한 8팀의 청소년 밴드가 경연을 통해 그 실력을 가리는 '우리는 밴드 중2다'가 펼쳐진다. 4일에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국내외 유명 재즈뮤지션이 함께하는 '부산 Sea&Jazz 페스티벌'이, 6일에는 한여름 바닷가에서 즐기는 클래식 콘서트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그리고 7일에는 부산극동방송 개국 9주년 기념 부산시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 '2017 열린바다축제'가 열린다. 또, 8월 4일부터 사흘간 만남의 광장에서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댄스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Dancing Together'이 관객들을 기다리며 5일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부산의 밤바다를 달리는 '2017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이 펼쳐진다.

이밖에 송도해수욕장에서는 8월 4일부터 사흘간 국민가수 현인 선생을 가리는 '현인가요제'가, 서핑과 낭만의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서는 8월 4일과 5일 이틀간 '송정 Beach Summer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5일 전국 자전거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캠핑형 프로그램 '스피닝 파라다이스'에 이어 6일에는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이 펼쳐지는 '부산 청소년 바다축제'가 열린다.



음악이 즐겁고, 사람이 즐겁고, 자연이 즐겁다. 三樂

2017 부산국제록페스티벌

8. 11(금)~8. 13(일) 삼락생태공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501-6051, www.bfo.or.kr

지난 2000년 첫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제18회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로, 국내외 최정상 밴드들을 만나기 위해 매년 전국의 록매니아들이 부산을 찾고 있다.

8월 11일부터 사흘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17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음악+사람+자연'을 즐기는 삼락(三樂)을 주제로, 메인 무대인 '삼락 스테이지'를 비롯해 국내외 록 인디뮤지션이 참여하는 '그린 스테이지', '라이징 스테이지', '쿨링 스테이지' 등 4개 무대로 꾸며지는데, 특히 마니아층을 비롯해 일반 대중이 록에 쉽게 다가가고 즐길 수 있도록 매년 무료로 열고 있다.

올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축제를 앞두고 1, 2차 라인업이 미리 공개되면서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1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널, 피아, 로맨틱펀치, 스틸하트, 일렉펀트, 매거스, 스카웨이커스에 이어 2차 라인업으로 이브, 내귀에도청창치, 네미시스, 한영애, MC스나이퍼&스코프밴드, 플라워, 전기뱀장어, 마하트마, 로다운30, 스트레인저, 모비딕, 아시안체어샷, 마르멜로, 텔레페릭, 슬프이뮤, 밤앳트랙, 지니어스, 바나나몽키스패너 등 18개팀이 공개됐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일렉펀트, 매거스, 스카웨이커스 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전국밴드경연대회 '부록배틀'은 2회차를 맞아 더욱 강화된다. 부산과 서울에 이어 올해는 광주에서도 예선(라이브 심사)이 진행되며, 본선 경연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라이징 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대상을 받은 일렉펀트가 올해 파격적으로 메인 무대에 초청되면서 전국의 인디 록밴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넘쳐나는 환상과 즐거움

제12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 3(목)~8. 6(일) 영화의전당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매년 여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보여온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17년 무대는 8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관객들에게 넘쳐나는 환상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 2006년 아시아 최고의 매직페스티벌로 첫발을 내딛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매지션들과 아마추어 매지션들이 함께 참여, 매직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는 '2018 세계마술올림픽'이 일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술대회 출전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마술올림픽은 전 세계 60개국 마술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마술 축제로,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세계마술연맹 총회에서 부산이 핀란드 헬싱키를 누르고 2018년 세계마술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세계마술올림픽은 내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벡스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12회를 맞는 올해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The Evolution - 진화'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마술이란 단어조차 낯설던 지난 2006년, 국제규모의 매직 페스티벌로 출발한 후 많은 변화를 거처온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마술의 특성상 대규모 야외공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3회 행사 때부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축제의 장을 확대, 한여름 밤,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를 찾은 시민들에게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를 선사했다. 올해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2018 세계마술올림픽'의 준비단계로 마술을 거리로 끌어내는 새로운 연출을 시도한다.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매직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매직 버스킹, 마술도구 전시, 마술 체험, 포토존, 마술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올해 축제기간 동안에는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인데, 피즈 그랑프리 출신의 프랑스 마술사 노베르트 페레를 비롯해 비누방울과 함께 환상적인 마술을 보여주는 미르코 칼라치, TV 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토니 차팩, 고품격의 마술 강의를 펼쳐 보일 우디 아라곤, 동양의 신비를 마술로 표현하는 황첸, 2012 피즈 블랙풀에서 최연소 심사위원을 맡은 국민마술사 최현우, 피즈 수상자인 유호진, 김유정국, 한영훈 등이 저마다 신비한 마술로 관객과 만난다.



웃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부산의 여름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8. 25(금)~9. 3(일) 영화의전당 외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916-8828, www.bicf.co.kr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 국제코미디페스티벌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 축제로 자리매김 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8월 25일 개막식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부산바다 웃음바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는 화려한 개막식에 이어 국내외 유명 코미디언들의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행사기간 동안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며, 축제 마지막날인 9월 3일 영화의전당에서는 한국 코미디 발전을 위한 코미디 어워드&폐막행사가 열린다.

이번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는 코미디 연기의 달인 김대희, 장동민, 신봉선이 최근 9년 만에 ‘개그콘서트’에 돌아와 화제가 된 대표 코너 ‘대화가 필요해’의 최신버전 ‘대화가 the 필요해’를 비롯해 매년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코미디페스티벌의 히트작 ‘이리오쇼’, 코미디와 노래, 춤, 퍼포먼스로 서울 대학로 공연가를 평정한 나몰라 패밀리 ‘나몰라쇼’, 코미디빅리그, 웃찾사의 흥행을 이끌었던 코믹 트리오 졸탄의 신선한 새 코미디극 ‘졸탄show’, 국내 코미디계를 평정하고 지난해 미국으로 진출, 5개 대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개그맨 박성호, 김재욱, 김원호, 이종훈, 정범균이 진행하는 ‘쇼그맨’, 요즘 대세 이상훈과 김철민, 김여운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위해 1년간 갈고닦은 관객참여 토크쇼 ‘개그지’,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참여, 호러와 코미디장르를 결합한 공연으로 주목받은 ‘코미디 몬스터즈’, 그리고 현재 EBS 예능프로그램 ‘놀자고’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이준수와 권형준이 선보이는 국내 유일무이한 어린이 코미디극 ‘썰아맨과 멜롱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한편, 한류 속 K-코미디를 한국 문화의 차세대 동력으로 내세우며 첫발을 내딛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지난해 8월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 중 하나인 ‘멜버른 국제코미디페스티벌’과 MOU를 체결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페스티벌로 우뚝 서고 있다.



9.2.토 - 9.9.토
부산문화회관, 부산도민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부산의 가을을 연다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르네상스를 꿈꾸다 Dream of Renaissance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7년 무대가 9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그동안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를 지향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르네상스를 꿈꾸다(Dream of Renaissance)'. 잠깐의 여유조차 누릴 수 없는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문화부흥기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련한 이번 음악제에서는 최고 수준의 일본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 1,0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여,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특히 이스라엘 출신의 지휘자로, 최근 Tel-Aviv Soloists와 함께 Landau 어워드 공연예술 부문을 수상한 마에스트로 바락 탈(Barak Tal)을 비롯해 세계 정상급의 비올리스트 다니엘 팔미지오를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체스카 드 파스칼레, 첼리스트 줄리엣 헤를린, 피아니스트 페이페이 동으로 구성되어 열렬한 에너지와 음악적 진실성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트리오 알레테이아', 지난 1985년 색소포니스트 요르겐 보브, 크리스티안 라스무센, 살럿 앤더슨, 시몬 버트랜드로 창단된 후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고 있는 덴마크 색소폰 콰르텟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이번 음악제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올해 개막연주는 현재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된다. 1983년 나고야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한 후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함께 아이치현으로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지난 1997년,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음악교육 프로그램, 스쿨 콘서트,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중국, 몽골에 이어 2009년 태국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96년 아이치현 예술&문화상, 2005년 나고야시 '예술진흥상', 2007년 나고야 음악 Pen-Club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9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연주에서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현재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로 있는 초세이 고마쓰의 지휘, 트럼페터 오타비아노의 협연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개막연주에 이어 9월 4일 울산도문화회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르타 코발지크, 비올리스트 다니엘 팔미지오의 협연으로, 5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튜바주자 피터 링크와 바이안주자 에브게니 페트로브의 협연으로 두 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9월 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에 이어 6일에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페트로브, 가야금주자 윤경선, 장재남 주자 안룡철, 얼후주자 앤디 린이 협연자로 출연, 피아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몽'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국내외 유망 연주자들의 경연과 교류 및 우수연주자 발굴을 위한 콘서트도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는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차세대 연주자들이 지휘자 바락 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9월 8일 금정문화회관에서는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있는 월슨 엔지가 지휘하는 홍콩 구스타브 말러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지난 2014년 창단된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음악을 통한 행복을 관객들과 나누며 관객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지역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음악제 마지막날인 9월 9일에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폐막공연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주자 연합으로 구성된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덴마크 색소폰 콰르텟과 함께 화려했던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음악제 기간 동안에는 메인콘서트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가족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 아웃리치 콘서트가 펼쳐진다. 9월 6일 동래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어린이를 위한 가족음악회는 지휘자 로버트 발트윈이 지휘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피아니스트 빈센트 브리스, 왕원정, 마술사 고두영의 협연으로 음악과 마술이 함께하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지는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은 9월 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의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는 9월 7일 사상다누리홀, 해운대문화회관, 8일 영도문화회관에서 세 차례 진행된다.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경남정보대학을 비롯해 부산예중,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예고를 연주자들이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이밖에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음악인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 시리즈'는 음악제가 열리기 앞서 8월 26일부터 사흘간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Dream of Renaissance



일본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2017년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신설령 음악평론가

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하는 2017년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그 첫 번째 순서로 6월 30일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차르트의 작품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주곡목을 선정했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잘츠부르크 교향곡'으로 불리는 '디베르티멘토 F장조'로 모차르트가 10대 후반에 쓴 곡이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앙상블도, 음량 배분도, 호흡도 다 괜찮은데 음악적 긴장감이 부족한 것은 디베르티멘토 특유의 단순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반부 연주의 중심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었다. 김희정은 1악장에서 자신의 음악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당찬 연주자의 모습을 보였고, 2악장에서는 풍부한 음악적 감성을 바탕으로 음악을 이끌고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바흐의 음악을 그녀의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협연이 끝난 후 청중의 환호에 답하여 비발디 '사계' 중 한 악장을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김희정은 연주를 통해 무대를 장악하는 음악적 힘을 보여주었다.

인터미션 후 모차르트의 '아다지오와 푸가 C단조'를 연주한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이어지는 연주곡목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 왈츠 곡을 비롯하여 R.로저스의 '에델바이스', R.슈트츠의 '구름을 타고 왈츠를' 등 오스트리아 작곡가의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연주곡목을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자기네 나라 작품을 얼마든지 고집어내어 연주할 수 있다는 음악적 자부심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려진 짧은 작품들로 연주곡목을 정하면서 대체로 쉬운 곡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자 데얀 다식은 청중에게 다가가는 지휘자로 보인다. 마지막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페툼 모빌레'를 연주한 그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빠른 음표들의 움직임 자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제스처로 끝을 맺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청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그리고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을 편곡한 연주에 바이올린을 전공한 지휘자답게 악기를 건네받아 몇 소절을 연주하기도 했다. '라데츠키' 행진곡 연주에 청중의 손뼉 치기는 늘 그래왔듯 지휘자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음악적 긴장감 넘치는, 밀도 높은 실내악 연주에 대한 기대감에는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연주자들의 음악적 몰입에 청중도 몰입하면서 음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연주자들의 열정과 지휘자의 열정에 나의 맥박도 점점 빨라지는 어떤 그러한 긴장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 일상을 잊고 그 아름다움에 한없이 빠져드는 특별한 삶의 축복 같은 순간을 기대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일까.

지휘자 혹은 연주자의 연주곡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기 다른 음악적 청취 경험을 가진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곡목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지 리스닝 음악'에 대한 청중의 호불호가 있는 한편 음악적 진지함 혹은 음악적 수준에 대한 선택의 고민 또한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음악연주단체가 지향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상자는 단 1회 무대의 음악만을 통해 반응하고 비판하고 혹은 열광한다. 그 1회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그들의 몫이다.

부산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버스정류장



◆ 허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연극학 전공

연극은 바로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다룬다. 적어도 관객이 지금 이곳의 나와 연관있는 현실적 이야기로 가져가길 희망한다. 비록 소재가 과거나 다른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유용한 예술로서 자리한다. 과거를 빚대어 오늘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더 확장하여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내일을 예측하기도 한다.

중국 작가이며 중어권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카오싱 쟈의 '버스정류장'은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부조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곳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래로 가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현실적이고도 적절한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실성 획득을 위해 대사의 일부분을 수정, 원작에 없었던 '이세돌' '알파고'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우리 주변의 사건을 삽입하기도 하고 연기의 패턴을 현재 우리 주변의 사건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서야만 정류장의 역할을 다하는 곳이다. 그러나 버스는 서지 않는다. 정류장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 그 버스에 탑승함으로써 비로소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든 버스는 이유 없이 지나가 버린다.

바둑 한 판을 두려고 시내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남편을 보기 위해 시내로 가는 여인,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기 위해 시내로 가는 청년, 요구르트를 싣혀 먹기 위해, 친구와 술 한 잔 먹기 위해. 각기 목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목표지점도 다른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왜 버스가 그들을 태우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지 영문도 모른 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린다. 얼핏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스는 지나가 버린다. 그들은 왜 버스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 것인지 그 이

유도 모른 채 불만을 토로하며 하염없이 기다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점차 그들이 대처해야 할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맹목적 행동에서부터 공동의 합리적 대처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다.

유일하게 버스정류장임을 알려 주는 녹슬고 비틀어진 철제 기둥과 이미 오래되어 '버스'라는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희미해져 버린 표지판은 지금 이곳의 장소가 지닌 의미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 관습에 길들여진 그들은 처음엔 발견하지도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것은 갑작스레 내린 '비'라는 외부적 자극 요인이다. 비가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고 비를 피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 속에서 형식뿐만이 아닌 내용의 동질성이 보인다.

카오싱 쟈의 희곡 '버스정류장'은 표면적으로는 일상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어려운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대로 차분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은 충분하다. 연출이 욕심을 내면 낼수록 관객의 과도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서브 텍스트 찾기에 필요 이상의 집중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 시나브로 더해지는 조명과 무대 뒷면의 빗줄기처럼 보이는 무대장치, 시각적 요소들과 중요한 전환기를 만드는 주는 '비'내리는 장면에서 보여준 기술 과시,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보여준 불확실한 노파의 등장은 어쩐지 사족 같다. 관극 후 감동의 여운이 가슴에 오래 남는 것을 방해한 것 같아 아쉽다. 조금은 관객이 채울 빈 공간을 주는 것이 '공연'의 묘미라면 말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개관기념 기획전 어린이 예술교육 체험전 '모래랑 빛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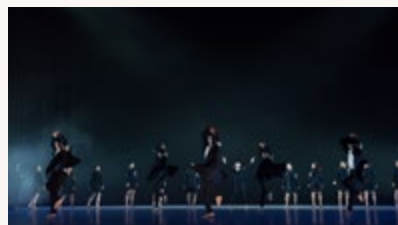
일 시 7월 7일(금)~8월 27일(일)
평일 10:00, 10:30, 11:00, 11:30, 12:00(평일오전은 단체예약만 가능), 13:30, 14:30, 15:30, 16:30, 주말 및 공휴일 10:30, 11:10, 11:50, 13:30, 14:30, 15:30, 16:30(※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실)
입장료 평일 1만 1천원, 주말 1만 3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단체 10인 이상 1만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1899-8418



국내 최초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모래랑 빛이랑'.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재개관에 맞춰 개관기념 기획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모래랑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으로, 그동안 43개 도시에서 6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모래와 빛이랑'은 친환경적 소재인 모래와 과학의 빛을 이용, 친구 및 가족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생각과 느낌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브니엘 무용 예술제

일 시 8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브니엘예술고등학교 582-7671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창작열정과 맘이 배어있는 2017 브니엘 무용 예술제.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출신 천재 안무가 나초 두아토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등 그의 대표곡을 빼대 삼아 안무한 '바흐 예찬'을 비롯해 화관무 한삼놀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한삼춤 '궁',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발레 '지젤' 1막 등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전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현대무용 'Programme Bach(바흐예찬)', 현대무용 '혼돈의 선율', 한국무용 '궁', 발레 '지젤 1막', 한국무용 '천상의 여망', 한국무용 '하운다기봉', 발레 '웨스턴 심포니', 한국무용 '꽃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일 시 8월 8일 화요일 오후 3:00,
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정통 클래식 발레와 역동적인 피겨 스케이팅이 만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세계 최초로 '아이스 발레'라는 장르를 개척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지난 1967년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피겨 스케이팅으로 창단된 후 그동안 고전발레 레퍼토리의 전막공연을 선보여왔다.

특히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일반 아이스 쇼와 차별화하기 위해 정규 공연장 무대 위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무대연출로 유명하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도 관객들은 아이스링크로 감싸여 탈바꿈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 2017년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 매년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 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가장 친근한 클래식 음악인으로 꼽히는 지휘자 금난새는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끊임 없이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으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 마림비스트 공성연의 협연으로 청소년들의 필수 클래식 감상곡인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중 '전주곡'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하바네라', '꽃 노래', '간주곡', '집시의 노래'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작곡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중 하나인 비발디 '사계' 중 '겨울',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민속적 정서가 짙은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 중 '마주르카', '로망스', '갈럽' 등 세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중 전주곡, 하바네라, 꽃 노래, 간주곡, 집시의 노래
사라사테/카르멘 환상곡 작품 25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겨울'
하차투리안/가면 무도회 모음곡 중 마주르카, 로망스, 갈럽

- 지휘/금난새
- 협연/위재원(바이올린), 공성연(마림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일 시 8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매년 국악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

보이고 있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특히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영화 '서편제'의 히로인 오정해의 사위로, 트럼펫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소리꾼 유태평양, 이윤아, 작곡가 겸 국악연주가인 민영치,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과 함께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일 시 8월 15일(화)~29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16일 부산아카데미앙상블 공연은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스페셜 패
키티켓 5회 이상 동시예매 50%, 4회 동시에
매 40%, 2~3회 동시예매 30%, 초·중·고·대
학생 본인 50%)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8월, 부산, 울산, 경남지
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
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
홀 개관을 맞아 펼쳐지
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정통 실내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챔
버홀 개관 페스티벌'에서
는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

을 여는 세계적인 명성의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클래식 애호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꾸준한 호
평을 받아온 조이오브스트링스, 코리안 솔로이스츠
와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비르투오조앙상블, 부
산플루트앙상블, 앙상블코스모폴리탄, 정두환의 음악
친구들 오케스트라, 원스트링챔버 등 부산지역의 실
력있는 앙상블,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아카데미앙상블 등
부산시립예술단까지 총 11개 단체가 참가, 화려한 라인
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 8월 15일(화) 오후 5:00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완벽한 음악적 해석과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다
양한 레퍼토리로 세계무대에서 호평을 받아온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

상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프레미에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동준모의 지휘, 부
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
연으로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8월 16일(수) 오후 7:30 부산아카데미앙상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아
카데미앙상블의 무대로,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음악가들의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 지휘/김봉미(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8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스트링과르넷, 브
라스앙상블, 스트링앙상블이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앙상
블 무대를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의
무대.

■ 8월 18일(금) 오후 7:30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주도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 화에 앞장서온 부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의 무대.

- 음악감독/김동욱(부산대학교 교수)
- 연주/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홍은지, 홍지수, 조
은비, 비올리스트 최영식, 이정환, 첼리스트
강윤선, 김경연, 피아니스트 탁영아

■ 8월 19일(토) 오후 5:00 비르투오조앙상블 '브람스의 화상'

부산지역에 실내악단체가 거의 전무하던 지난 1995
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지
금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적 영역을 넓혀온 비르
투오조앙상블의 무대.

브람스 서거 120주년을 맞아 브람스의 음악세계를 비르
투오조앙상블만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재조명해본다.

- 연주/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리더), 배수현, 조무
중, 김유리, 비올리스트 김은진, 김민경, 첼리
스트 박경숙, 김근해, 클라리네티스트 백동
훈, 피아니스트 권준

■ 8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플루트앙상블 부산의 대표적인 플루트앙상블로 꼽히는 부산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 플루트/박찬엽, 장극대, 정옥경, 조진학, 김명훈, 유
주영, 장예지, 김하나, 장정림

- 피아노/이은정

■ 8월 22일(화) 오후 7:30 앙상블코스모폴리탄 '바흐, 그리고 텔레만'

지난 2010년 첼리스트 이일세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결성된 후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앙상블코스모폴리탄의 무대.

- 음악감독/이일세
- 연주/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택, 송범석, 성기쁨, 박
완서, 비올리스트 김명복, 천재현, 신요한, 첼
리스트 이경성, 베이스리스트 김영호, 챔발로
주자 강수근

■ 8월 25일(금) 오후 7:30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
목민' 정두환과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8월 26일(토) 오후 5:00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 주가 이끄는 조이오브스트링스의 무대.

1977년 뉴욕 카프만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으로 마
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이라는 부제로, 바로크 시대의 걸작을 들려준다.

■ 8월 28일(월) 오후 7:30 원스트링챔버 건고한 실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비올리스트 이 정일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젊고 열정적인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원스트링챔버의 무대.

■ 8월 29일(화) 오후 7:30 코리안 솔로이스츠 화려했던 개관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해온 코리안 솔 로이스츠의 무대가 펼쳐진다.

제8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3인 3색 콘서트

일 시 8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환자와 보호자들의 아
픔을 음악으로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로비음악회를 가져오고
있는 연산동 웰니스병원
의 후원으로 열리는 웰
니스병원 음악회 8번째
무대.

남미 최정상급 열정의
피아니스트 이석우, 폭
발적인 에너지의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 중후한 울
림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첼리스트 이동열이 출연, 3
인 3색 콘서트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간단한 시
피아졸라/천사의 죽음
피아졸라/남쪽으로 돌아가리라
그라나도스/고예스카스 간주곡
피아졸라/사계 등

부산 청소년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장극대 010-3582-5189



플루트의 매력에 빠진
부산지역 초·중·고생들
로 결성된 부산 청소년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
단연주회.

총괄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
부산목관5중주, 아담스
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
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장극대가 이끄는 부산 청소년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실력향상과 더불어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오펜바흐/강강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1번
한국민요/새아 새아, 아리랑 모음곡 등 수곡

- 지휘/장극대
- 지도/정주영, 장정림, 송경은, 서하영
- 협연/플루티스트 조신혜

음 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2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9월(제614회) 부산클라리넷과이어 창단28주년
제20회 정기연주회



지난 1989년 동아대학교 정우영 교수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후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프로 연주자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를 모색하는 등 클라리넷 연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부산클라리넷과이어의 정기연주회.

16일(제615회) from Europe to America with Piano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화경, 김은정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이화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8th 파도바 인터네셔널 컴페티션에서 1위 입상한 바 있다. 김은정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와 미국 신시내티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3일(제616회) 플레이어즈 벅 제4회 정기연주회
'All That Clarinet'



지난 2014년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들로 결성된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로이스츠 단체인 플레이어즈 벅의 무대. 독주에서부터 듀오, 트리오 등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 관객들에게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하고 있는 플레이어즈 벅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Bex'은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를 뜻하며,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0일(제617회) Concert Ensemble Cla+zz
(양상블 클래즈)

첼리스트 문숙연, 바이올리니스트 하은, 피아니스트 박은정으로 결성된 양상블 클래즈(Ensemble Cla+zz)의 무대.
양상블 클래즈(Ensemble Cla+zz)는 클래식(Classic)과 재즈(Jazz)의 만남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전통 클래식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연주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곡가 혹은 음악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해오고 있다.

2017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8월 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만원(초·중·고생 5천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198-0074



매년 여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전국의 유명 클래식 기타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마련하는 2017 부산기타페스티벌.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현규를 비롯해 윤원준, 이명선으로 구성된 그라토기타듀오, 이봉주, 염해석, 김병현, 박진영의 대구기타과르텟, 그리고 주최법인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상임지휘/김경태)이 참가, 클래식 기타의 향연을 펼친다.

지난 2002년 프로와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되어 부산기타페스티벌은 기존의 프라임 클래식기타만이 아닌 베이스기타, 챔발로기타, 기타론 등 특수형태의 클래식기타가 함께하는 부산 유일의 기타오케스트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타페스티벌을 가져오고 있다.

장희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8월 6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영음예술기획 02-581-5404



풍부한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장희진 귀국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메네스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 뢰거스 뉴저지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장희진은 일찍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디션에 발탁되어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틴에이지콩쿠르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 골드메달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Artists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Special Presentation Awards를 수상하여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 무대를 성공리에 가진 장희진은 Vienn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그 실력을 입증받았으며 그동안 전 세계 유수의 홀에서 독주회와 챔버 리사이틀을 가지며 폭넓은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8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카톡ID ipbchamber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IPB) 멤버로 있으며 부산 MBC라디오 '이리나의 Kiss the Classic'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줄리어드음대 학사과정, 메네스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리나는 1994년 뉴욕에서 열린 Young International Artists Competition에서 우승, 카네기 리사이틀홀에서 정식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사계' 전곡을 비롯해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오블리비언', 시라시데 '피고이네르바 이젠'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김성덕 작곡발표회

일 시 8월 8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010-5541-8576



한국예술문화명인(작곡), 한국창작가곡협회 회장, 부산작곡가협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작곡가 김성덕 작곡발표회.

국립합창단을 위시한 위촉작품 작품 발표 500여회를 비롯 총 1,600여편의 작품을 창작하고 40권의 작곡집을 출간한 김

성덕은 그동안 6차례 개인 작곡발표회를 가졌으며 전국작곡콩쿠르 1등,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 공모 작품상, KBS TV 공모작곡 대상, 부산음악상 등 다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기다림(김지향 詩), 오! 나의 사랑 ROSE(전병구 詩), 진달래꽃(김소월 詩) 피아노 트리오 제3번, 봉래산에서(김선아 詩), 바닷가에서(정진채 詩), 부산강동시장(이소애 詩), 한 낮에(염계자 詩) 등 수록

김지윤 피리 독주회 바람과 마음의 소리

일 시 8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무료

문의 문화예술방송기획 클라우드포세이돈
02-2611-6343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장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2017 러시아 야쿠츠크 백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에 국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아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선보인 피리주자 김지윤 독주회.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김지윤은 지난 2015년 마루국제음악제에 이어 지난해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그가 대표로 있는 소리 숲 앙상블 무대가 전석 매진되는 등 부산에서의 연주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지윤은 2015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 주최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문화예술단체 소리 숲 대표, 헤케이브 소은 컴퍼니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1930년대 뉴욕으로의 여행 골든 스윙 밴드

일 시 8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재즈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장 영광스럽던 순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들려주는 복고풍의 정통 재즈 밴드 골든 스윙 밴드(Golden Swing Band)의 무대. 스윙 재즈(Swing Jazz)는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던 1920년대, 마피아가 운영하던 비밀클럽에서 연주되었던 신나는 춤곡 위주의 재즈음악으로, 대표적인 음악 가로는 베니 굿맨, 글렌 밀러, 카운트 베이시, 듀크 엘링턴 등을 꼽을 수 있다. '즐거우면서도 우아했던 스윙의 황금기를 연주하지는' 모토를 지닌 골든 스윙 밴드는 피아노와 보컬을 함께 연주했던 그 옛날 멋스러운 스탠더즈 재즈를 통해 아날로그의 어울림을 선사한다.

제12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일 시 8월 10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010-5541-8576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들려주는 제12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틋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독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회장/김성덕
- 작곡/강영화, 김성덕, 김성희, 김수정, 김수진, 김정란, 김종태, 노순덕, 심순보, 우덕상, 이강산, 이상훈, 이승임, 이주애, 전세용, 정혜옥, 허연숙, 홍수정
- 작사/김무영, 김순자, 김정순, 김지은, 김춘남, 박미정, 박병금, 선용, 안덕자, 이소애, 이애리, 이자경, 장현선, 정원식, 정재분, 조윤주, 최복자, 하빈, 황미숙, 현애자, 황예순

콰르텟 드 콤마 제3회 정기연주회 댄스 그리고 씬

일 시 8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콰르텟 드 콤마 010-8540-36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보라, 이윤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KNN방송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이현원, 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장여정으로 구성된 콰르텟 드

코마의 무대.

'춤'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무곡을 통해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알베니스/탱고 라장조

피아졸라/오블리비언

암스트롱/록산느의 탱고/영화 '물랑루즈' OST)

생상스/죽음의 무도 등

- 진행 및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해금연주자 최유리의 해금 콘서트 My favorite things

일 시 8월 10일 목요일 오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최유리 010-3994-467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퓨전앙상블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 해금야생연주단 해아연 단원, 소리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연주자 최유리의 무대.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실기강사로서도 있는 최유리는 이번 무대에서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한다.

- 연주/소리앙상블(동경화, 송범석, 천나혜, 박성진, 박선영), 피아노 차민영, 퍼커션 김은호, 소프라노 최유리, 바리톤 김차돌
- 진행/김윤선

후브라스콰이어 제5회 정기연주회 브라스 페스티벌

일 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후브라스콰이어 010-8733-7438



지난 2011년 진지한 음악 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경남의 우수한 금관악기 연주자 6명으로 창단한 후브라스콰이어 정기연주회.

후브라스콰이어는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찾아오는 음악회, 교육 프로그램

연주,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현대음악앙상블 Project 21And 멤버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 KNN방송교향악단 단원, 앙상블 Pit a Pit 단원으로 있는 호른리스트 부상현의 협연으로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들려준다.

- 지휘/김기을(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 후브라스콰이어 음악감독)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Klavier House Concert 제6회 유니세프기금조성 여름 음악회

일 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Klavier House Concert 010-3069-9777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현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매주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토요 봉사음악회 'Klavier House Concert' 86번째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유니세프 기금 조성을 위해 연주비 전액을 기부하는 특별한 음악회로, 음악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어린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피아노/박상현, 허예나, 이준호, 김보윤, 김태건, 김지수
- 바이올린/김현우
- 성악/윤혜빈, 김태현, 이호서, 박해원
- 플루트/설경하
- 클래식기타/고채운

한 여름밤 소양무지개동산 가족 산골짜 작은 음악회

일 시 8월 15일 화요일 오후 7:00
소양무지개동산 야외마당
입장료 무료
문의 소양무지개동산 구현웅(010-9751-0302)



1946년 강원도 춘천에서 설립된 후 1951년 6·25전쟁 당시 지금의 가덕도에 정착한 아동양육시설인 소양무지개동산 가족들이 마련하는 '산골짜 작은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클래식 악기를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故 지형식 원장의 작은 꿈에서 시작되어 지난 1997년 창단한 소양챔버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마린뮤즈콰이어(지휘 김태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V브라스밴드 등 재능기부 연주자들이 출연, 후원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여름밤 시원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구현웅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2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입문

일 시 8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70-8899-7308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KNN 라디오 '클래식 in the 교과서' 해설자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병기, 한국국제대학교 음악공연학과 교수, JM양상을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곡인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비롯 브람스 '헝가리 무곡' 등 모든 연령대의 관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곡으로, 클래식음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 지휘/홍성택
- 협연/피아니스트 김병기, 유영욱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위풍당당 콘서트

일 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김재영 010-6296-0885



지난 2015년 1월 창단 후 금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사연주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현재 아라, 아토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부산시민오케스트라 단원, 장전제일교회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지휘자 김재영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애니메이션, 드라마 O·S·T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베토벤 '심포니 제5번' 1악장, 아리랑 환타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O·S·T, 드라마 '도깨비' O·S·T 중 'beautiful' 등 수곡

- 음악감독, 지휘/김재영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그리그의 페르귤트 조곡

일 시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하는 청소년음악회 '그리그의 페르귤트 조곡'.

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 음악회는 '북유럽의 쇼팽'이라 불리며 북유럽의 어두움과 서정적인 멜로디를 작품속에 담아낸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귤트 조곡'을 들려준다.

'페르귤트 조곡'은 헨릭 입센의 동명의 희곡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특히 그의 조곡 노르웨이의 자연을 담은 명곡이다.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아침의 기분', 북유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솔베이지의 노래' 등 대표곡을 시원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7회 프롬나드 콘서트 여름을 보내며|End of Summer

일 시 8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8월 무대. 128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에 자리한 역사관 '부산 챔버스퀘어'에서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지역 경제인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8월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의 협연으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두레아움 명품 실내악 시리즈 I

노부스 콰르텟 결성 10주년 전국 투어 NOVUS DECADE

일 시 8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aum.org



세계적인 현악사중주단으로 성장한 노부스 콰르텟의 결성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전국투어 부산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바이올린),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문웅취로 구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지난 2007년 결성된 후 2012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4년 2월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한국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처음으로 우승, 한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노부스 콰르텟은 뉴욕 카네기홀, 빈 뮤직페라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한국 연주단 최초로 베를린 뮤직페스티벌에 초청받은 바 있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피아노의 신, 쇼팽을 만나다

일 시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3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노의 신' 쇼팽의 삶과 작품세계를 낱알이 파헤쳐보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8월 무대.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호평받고 있는 음악 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 피아니스트 김재원,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걸작으로 칭송받는 쇼팽의 연주곡을 함께 감상하며 그의 작품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 현재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그의 음악인생을 따라가며 알아본다.

프로그램

쇼팽과 폴란드/왈츠 작품 34 제3번
마주르카 작품 17 제4번
쇼팽과 라이벌/에튀드 작품 10 제1번, 제5번
발라드 작품 47 제3번
쇼팽과 연인들/서주와 폴로네이즈 작품 3 등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아버지들의 신나는 음악여행'

일 시 8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가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날이다.

8월 무대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창단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이 우리 귀에 친숙한 가요를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름다운 사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느 봄날 등 수곡

- 지휘/이성훈
- 반주/구화진
- 특별출연/김지현, 한우인, 정희석

연극 | Play

코믹연극 '크레이지투'

일 시 5월 12일(금)~8월 2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서면 AN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미니티켓 1600-1716



정신의학계의 엘리트 유학파 천재 왕진에 박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한 왕진에 박사는 무료로 진행되는 치료 프로젝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중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자신까지 환자로 위장해 5명의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각종 중독증세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캐릭터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올드미스 닥터 왕진애와의 요절복통 좌충우돌 사건들이 빠른 극 전개와 탄탄한 스토리, 신나는 퍼포먼스로 펼쳐지는 코믹극 '크레이지 투-올드미스 닥터 왕'.

연극 '이프온리'

일 시 5월 26일(금)~8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온리'.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그녀), 보내고 남는 그(그녀)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 작, 연출/이민혁

연극 '다이어리'

일 시 7월 27일(토)~9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관 1588-2757



지난 2013년 초연 이후 50만 관객을 동원한 원조 섹슈얼 코미디극 'S 다이어리' 부산공연. 김선아, 공유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던 'S 다이어리'는 가슴 시린 첫사랑의 아픔 규현, 그 아픔을 보듬어주며 다가온 두 번째 사랑 정석, 애라 모르겠다 그냥 저절로 보자고 만난 세 번째 연하남 아인 등 서른을 앞둔 주인공 나진희의 연애사를 총정리한 내용으로, 연애에 관한 솔직한 남녀의 적나라한 속마음을 깨달린 탄탄한 이야기로 맛깔스러운 연애의 짜릿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극단새벽 부설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아는 사람

일 시 8월 10일(목)~26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대학생·청소년 1만원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극단 새벽의 연극아카데미(연극학교) 출신들로 극단 새벽의 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예술연구회의 첫 번째 정기공연. 대학생,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아마추어 연극인으로, 매주 3회 이상 모여서 연극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고 있는 극예술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극작가 닐 사이먼의 '굿 닥터'를 읽고 작품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해석, 창작한 독후감 연극 '아는 사람'을 선보인다.

- 연출/변현주
- 극작/이성민
- 극작/정선욱
- 출연/최소영, 정선욱, 신혁

영 화 | Movie

부산예술회관 작은 영화상영회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일 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전시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예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부산예술회관이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작은 영화상영회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마련되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준비된 다과를 즐기며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영화 2 수다'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일정

- 8월 26일(토) 은밀한 가족(감독/알렉산드로스 아브라나스, 2014년 작, 그리스)
- 9월 30일(토) 아무르(감독/미카엘 헤니케, 2012년 작, 프랑스)
- 10월 28일(토) 화양연화(감독/왕가위, 2000년 작, 홍콩)
- 11월 25일(토) 내 어머니의 모든 것(감독/페드로 알모도바르, 2000년 작, 프랑스)
- 12월 30일(토) 연인(감독/장 자크 아노, 1992년 작, 프랑스)

- 진행/서영조(부산영화인협회 회장)

2017 극단 아트레볼루션 신작 레퍼토리 용서받은 시간

일 시 8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3만원
(24일 공연은 무료)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메이드 인 부산'의 타이틀을 걸고 창작활동을 가져온 극단 아트레볼루션의 2017년 신작무대. 형제는 어린날 목격한 아버지의 실수를 가슴에 담은 채 소년으로 성장한다. 오랜 세월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길어진 원망의 시간 속에 깊어져 가고 용서는 점차 잊혀져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증오는 커져만 가는 데... 과연 이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연극 '용서받은 시간'은 아버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깨어진 한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간의 상처와 사랑을 이야기한다.

- 작, 연출/박정우
- 출연/박찬영, 김정환, 김범수, 김현기, 정호준, 채민수, 박준성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4K 디지털 클래식

일 시 7월 19일(수)~8월 2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고화질의 영상과 사운드로 복원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시네마테크 특별전 '4K 디지털 클래식'. 니콜라스 레이 '이유 없는 반항', 자크 타티 '트래픽', 루이스 브누엘 '세브린', 프레드 진네만 '줄리아', 밥 포시 '올 댓 재즈', 존 배덤 '토요일 밤의 열기' 등 상영 때마다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명작들에서부터 루키노 비스콘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작 '희미한 굴벌자리', 재평가를 기다리는 독창적 작가 리처드 플레이서 '강박충동', 위대한 테크니션인 조지 큐커의 사랑스러운 소품 '귀여운 빌리', 할리우드의 양심이자 걸출한 장인인 마틴 리트의 수작 서부극 '옴브레' 등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무 용 | Dance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시즌 3

일 시 6월 1일(목)~12월 30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시민은 1만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034



화려한 궁중예술과 영남 지역 전통 춤, 연희로 구성,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왕비의 잔치' 시즌 3.

'왕비의 잔치'는 지난 2015년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으로 시작된 후 지난 시즌 1, 2 총 300회의 무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5만여 명이 관람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시즌3에서는 춤과 음악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 동래고무를 승전무로, 고성오광대를 산오광대로 수정, 지역의 민속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한편, 궁중의 포구락 놀이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놀이적 요소와 관객과의 소통을 늘렸다.

- 연출/배중섭
- 안무/국수호
- 공동대본/배중섭, 국수호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서트 영상으로 만나는 연극 '보물섬'

일 시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전화예매 필수)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공연영상을 즐기고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서트 8월 상영회.

연극 'The Jungle Book',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등 소설을 특유의 창의력과 탁월함으로 무대화하는 연출가 이대웅의 모험극 '보물섬'이 선보이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100년 동안 사랑받아온 꿈과 모험이 가득한 연극 '보물섬'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의 원작으로, 아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보물섬'은 짐 호킨스라는 소년이 겪는 모험의 여정을 짜릿하고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콘서트 | Concert

라쿤 영 페스티벌 2017

일 시 8월 26일 토요일 오후 1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전석 3만9천9백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잘 먹고 잘 살자'를 주제로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와 강연, 그리고 토크로 진행되는 신개념 청춘 릴레이 콘서트 '라쿤 영 페스티벌 2017'.

방송인 겸 기업인으로 활동 중인 홍석천과 톱스타들의 전담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진 한혜연, 여행정보 플랫폼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가 출연해 청춘들에게 각자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풀어내며, 연이은 히트곡 행진으로 '음원대세'로 떠오른 볼빨간 사춘기와 합창계의 '슈퍼루키' 창모, 공감을 일으키는 음악으로 각광받는 밴드 소란, '공연 강자' 데이브레이크, 대표 레게 듀오 스킵&하하 등이 청춘을 위로하는 열띤 공연을 펼친다.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시대의 음악을 듣는다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15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3월 14일 600회를 맞은 '좋은 음악 & 좋은 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일정

1일(617회) 르네상스(Renaissance)음악에서 부터 바로크(Baroque)음악까지

8일(618회) 고전(Classic)음악 년 누구냐?

22일(619회) 낭만(Romantic)음악과의 이야기

29일(620회) 이달의 책읽기 '별들의 노래를 듣는다'(김진묵 저, 달아살)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r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강좌. 내 삶의 힐링을 위한 클래식음악과 만나는 자리로, 클래식음악을 영상과 함께 알기 쉬운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1강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B단조'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소나타 1번'

2강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전막 감상

3강 베를린 필하모닉 '발트뷔네 숲속콘서트' 공연실황

4강 다시 보는 비콘서트_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바덴바덴 리사이틀'

5강 클라리넷 명곡_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베버 '클라리넷협주곡'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8월 아카데미

일 시 8월 7일(월), 8일(화), 16일(수), 21일(월), 22일(화), 28일(월), 29일(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7일(월) 오후 7:30 김문홍, 영화 속을 걷다(1)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미학'

영화, 학생 노트를지어 읽어'

● 강사/김문홍(극작가, 연극평론가, 한국공연사연구소 소장)

8일(화) 오후 7:30 나는 누구인가?

'주체와 정체성_영화, 매트릭스'

● 강사/김종식(철학박사 DRS 아카데미 대표)

16일(수) 오후 7:30 스페인음악의 모든 것

'사르수엘라(악곡) 파스토렐라(무곡)_

세파르디의 음악 스페인 기타'

● 강사/정찬식(음악해설가)

21일(월) 오후 7:30 객근수의 클래식투어(12) '지휘의 새 지평을 연 마에스트로_펠릭스 멘델스존'

● 강사/객근수(음악평론가)

22일(화) 오후 7:30 이성훈의 예술과 사유(12)

'2017 유럽 그랜드 아트투어를 다녀와서(1)'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28일(월) 오전 10:00 우리 시대의 니체_

영화, 정원사 올리브 나무 사이로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교수)

28일(월) 오후 7:30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와

예술, 영화, 패티슨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수)

29일(화) 오후 7:30 고전을 재해석하다

'조선 후기 북경과 서울'

● 강사/강명관(부산대학교 교수)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독도사랑시낭송대회 및 응모전

일 시 8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새충재병원 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객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강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생애와 작품세계

일 시 8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객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8월 강좌에서는 초기 낭만주의 시대의 오페라 거장 베르디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내용으로 마련된다.

베르디(1813~1901)의 오페라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명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강좌에서는 풍부한 인문학적 자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담은 연주실황영상으로 베르디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13주 25만원(해설집 제공, 8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최정옥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프로그램

9월 14일 켈틱음악2
9월 21일 쿠바음악
9월 29일 집시음악과 플라멩고
10월 12일 상송2
10월 19일 Newage
10월 26일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11월 2일 멕시코 음악
11월 9일 Feeling Jazz 2
11월 16일 보사노바 & 탱고
11월 23일 그리스 음악
11월 30일 파두(Fado)
12월 7일 레게 & 안데스음악
12월 14일 영화음악
● 기획, 해설/예매 최정옥

반고흐 라이브 展

일 시 5월 11(목)~9월 30일(토)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초중고생 1만 2천원
어린이 8천원
문의 (주)리얼 미디어 741-3007

고은사진미술관 독일국제교류처(IFA)

해외교류전

바바라 클렘, 빛과 어둠

일 시 5월 20일(토)~8월 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독일국제교류처(IFA)가 기획한 순회전으로, 독일의 사진가 바바라 클렘의 작품을 소개하는 고은사진미술관 2017 해외교류전.

사상생활사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내 어머니가 계시는 그리운 안방 풍경'展

일 시 5월 25일(목)~11월 30일(목) 사상생활사박물관
문의 사상생활사박물관 310-5137~8

신사실파, 추상미술의 지평

일 시 5월 26일(금)~8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김환기, 백영수, 유영국, 이규상, 이종선, 장욱진 등 신사실파(新寫實派)와 그 동인들의 초기 작품을 통해 한국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신사실파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부산미술, 그 정체성의 출발 : 토벽동인

일 시 5월 26일(금)~8월 1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출품작가/김경, 김종식, 김영교, 김윤민, 서성찬, 임호

국립해양박물관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기획전 찬란한 도전

일 시 5월 30(화)~8월 27일(일)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국립해양박물관 309-1900

임상빈 : 에네르지아

일 시 6월 29일(목)~8월 8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전관
입장료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문의 (주)리얼 미디어 741-3007



대상이나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디지털 콜라주 방식으로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이미지를 완성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실제와 허구, 개념과 실체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진작품을 주로 선보여 온 작가 임상빈의 신작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 바다 위에 나타난 수많은 요트, 푸른 수영장과 바다를 점령한 휴양 인파, 도쿄의 한 호텔에서 바라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모인 풍경, 넓은 도로 위 부감으로 놓인 집회에 운집한 시민들 등 인간이 집단으로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과 생명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에바 알머슨 개인展 'Beginnings'

일 시 7월 13일(목)~8월 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그린.다는.것'展

일 시 7월 21일(금)~8월 14일(월)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 참여작가/김수연, 전현선, 이은새

정윤태 조각 초대전

일 시 7월 25일(화)~8월 10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이헌정 'The Journey'展

일 시 8월 10일(목)~9월 1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8) '2017 여름—樂'展

일 시 8월 16일(수)~8월 30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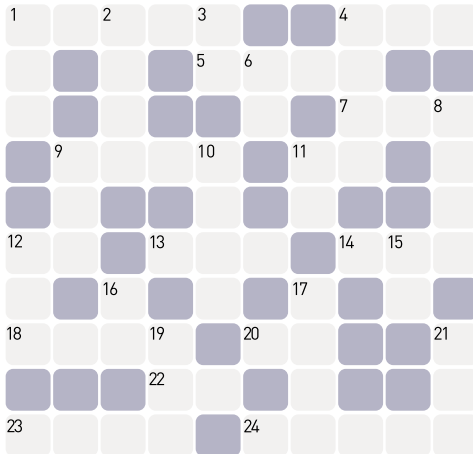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중간보고서 2017_정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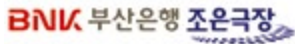
일 시 8월 19일(토)~10월 18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Program Guid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옐로인 플라워

가로열쇠

- ① 은반 위에서 토슈츠 대신 스케이트를 신고 정통 발레의 우아함을 살리면서도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21세기 새로운 예술장르.
- ④ 부산에서 활동한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 지난 1981년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뜻을 모아 그의 이름을 붙인 아동문학상을 제정했으며, 그가 생전 살았던 동래구 온천동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이 지난 2002년 건립되었다.
- ⑤ 조선시대의 작가, 연대 미상의 판소리 계열의 고전소설. 심술이 사납고 인색해서 병든 80세의 노모를 박대하던 웅고집이 도술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웅고집에 의해 쫓겨나 결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⑦ 투우 경기에 참가하여 소와 싸우는 사람.
- ⑨ 중동 서쪽 구석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 수도는 예루살렘. 기독교와 유대교의 발생지이며 이슬람의 성지로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자 팔레스타인인의 고토이기도 하다.
- ⑪ 태양계에서 생물체가 사는 유일한 곳.
- ⑫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사회.
- ⑬ 요르단의 고대 유적.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워진 도시로 1000여 개의 바위를 뜻한다. 2007년 유네스코가 새로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영화 '인디애나 존스:최후의 성전'에 등장하기도 한다.
- ⑭ 악살스러움이나 풍자가 주는 아름다움.
- ⑮ 칠레의 수도.
- ⑯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민속음악.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한 말로,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⑰ 판소리, 민요와 함께 민속음악의 대표적 음악양식.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예인 광대들의 음악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악독주곡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 ⑱ 프랑스의 비행조종사이자 소설가인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 ⑳ 1980년 5월, 목숨을 걸고 광주에 취재를 간 독일 기자 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훈 감독, 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주연의 한국 영화.

세로열쇠

- ①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장군 라다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1000명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베르디 오페라.
- ② 그리스의 미술 및 설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 사자의 몸통에 인간 여성의 머리, 그리고 조류의 날개가 달린 짐승. 이집트 카프레왕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기자의 대 1000'은 몸의 길이가 73m에 높이 22m에 달한다.
- ③ 프랑스 감독인 퓌 베크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장 르노, 나탈리 포트만, 게리 올드만 주연의 영화로, 액션영화로서의 재미와 멜로드라마로서의 애잔함을 두루 갖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 ④ 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 원래는 강인한 성격의 함경도 사람을 평한 말이었으나 지금은 명분이 서지 않는 일로 싸우거나 체면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다투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 ⑥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1890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대표작으로 '해바라기' 연작, '별이 빛나는 밤', '파이프를 물고 귀에 봉대를 감은 자화상' 등이 있다.
- ⑧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8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발표한 음반이자 타이틀곡.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모티브로 한곡으로, 한국어 가사는 윤심덕이 붙인 것으로 추정한다.
- ⑨ 7월 27일 열렸던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써퍼판타지'가 요한창음악회의 주인공. 대표곡으로 사랑이 지나가면, 깊은 밤을 낚아서, 옛사랑, 이별이야기 등이 있다.
- ⑩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의 공주이자 아가멤논 왕과 클리템네스트라 여왕의 딸. 남편인 아가멤논 왕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와 그의 정부를 살해했다.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반감을 갖는 경향을 가리키는 정신분석학 용어인 '1000 콤플렉스'는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 ⑪ 제사를 모시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당에서 쓰는 신주 대신 임시로 만드는 위패.
- ⑫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산. 해발 1,058m인 천황봉을 중심으로 관음봉, 비로봉, 경업대, 문장대, 입석대 등 해발 1,000m 내외의 산봉우리들이 있다.
- ⑬ 달의 갈비라는 뜻으로,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⑭ 코끼리의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길게 자라 나온 두 개의 엄니.
- ⑮ 고대 민족 인형극 '박첨지놀음'에 나오는 여자 인형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에는 자기 주관 없이 남의 손에 돌아나는 주변머리 없는 사람에 빗대어 쓰고 있다.
- ⑯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조선시대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였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인 김정호의 호.
- ⑰ 신라 문무왕 18년(678년)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된, 금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 고찰.

지난호 정답

1버	스	2정	류	장	3젊	4이	숨
스		선			은	라	
5킹	6공			7구	텐	베	크
	8코	펜	하	겐	르		9더
10사	드			하	11테	트	리
도	12김	13영	임		르		퀘
	14사		화		의	15퀴	어
16고	명		의	17오	슬	로	
	대	18전	설		품	19박	
20신	사	임	당	21경	22아	열	대

7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박경란(동구 초량북로), 성숙희(남구 용호로)

큰집 식자권 권민(동래구 아시아드대로), 김희(남구 양지골로), 정정미(동래구 쇠미로), 조새늘(해운대구 대천로), 하주태(강서구 화전상당6로)

조은극장 김규진(창원시 충무로), 이해경(사하구 낙동대로), 송봉석(사하구 신산북로), 정세은(동래구 금강로), 조재환(수영구 광안해변로)

공간소극장 김희경(남구 못골번영로), 이미경(연제구 월드컵대로), 이승우(동구 중앙대로), 장연주(사하구 옥천로), 정지숙(동래구 쇠미로)

RECORD



GM뮤직 제공



클래식에 미치다

▶ 페이스북 페이지 '클래식에 미치다' & 워너뮤직의 콜라보 음반

무려 30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를 거느린 클래식 최고의 페이스북 페이지 '클래식에 미치다'와 워너뮤직이 공동 기획한 클래식 컴필레이션 앨범이 드디어 선보인다. 일명 '클미'라고도 불리는 '클래식에 미치다'는 클래식 관련 페이스북 대형 페이지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폭넓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쇼팽의 '야상곡'에서부터 리스트 '사랑의 꿈', 베토벤 '로망스', 슈만 '어린이 정경',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바그너의 '발퀴레'까지... '클래식에 미치다'의 운영자 안두현 지휘자가 직접 선곡한 당신이 꼭 들어봐야 할 클래식 명곡들이 두 장의 CD에 담겨있다. 아직도 '클래식에 미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미치도록 아름다운' 클래식 모음집이다,



김재미 슈만 피아노 작품집 '러브 스토리'

▶ 클라라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열정을 담아낸 슈만의 피아노 이야기

피아니스트이자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 중인 김재미 교수의 첫 앨범으로, 로맨틱 피아니즘의 진수,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을 대표하는 슈만의 피아노곡을 담고 있다. 테너故 김상두 선생이 부친으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5세 때 어머니에게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김재미는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정진우 교수를 사사하며 전공 실기 수석 및 우등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사학위,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재미는 최근 자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미 전주대학교 교수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를 마쳤으며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음반에서는 그리운 이(클라라)에 대한 열정과 혼이 담긴 대서사시 '환상곡(Fantasie in C Major, Op.17)'과 슈만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는 정열적이며 충동적인 플레르스탄과 시적이며 섬세한 오이제비우스를 각 곡마다 충실히 해석한 '크라이슬레리아나(Kreisleriana, Op.16)', 건반으로 들려주는 사모의 시 '현정'이 수록되어 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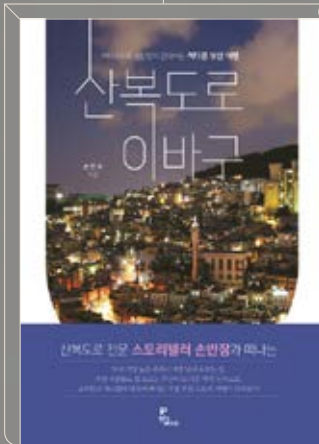
▶ 오케스트라의 폭군 '예프게니 므라빈스키'가 마지막으로 남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비창'

마치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강렬한 사운드와 러시아 군대의 열병식을 거행하듯, 완벽함을 자랑하는 레닌그라드 필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비창'의 전설적인 명반으로, 50년 넘게 레닌그라드 필을 지휘한 '지휘대의 폭군' 예프게니 므라빈스키가 뽑아내는 일체의 감상을 배제한 무시무시한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므라빈스키가 남긴 마지막 '비창' 레코딩으로, 1982년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대연주장에서 라이브로 레코딩했다. 지휘자 예프게니 므라빈스키는 1938년 10월 레닌그라드 필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후 1988년까지 레닌그라드 필을 이끌었다. 므라빈스키의 지휘 아래 레닌그라드 필은 특히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같은 러시아 음악에 있어서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1938년부터 1961년까지만 스튜디오 녹음을 했으며, 1961년 이후의 음반은 모두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그의 마지막 녹음은 1984년에 있었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2번의 공연 실황이다.



박헌주 · 북칼럼니스트

BOOK



산복도로 이바구

손민수 지음 / 인디페이퍼 / 396p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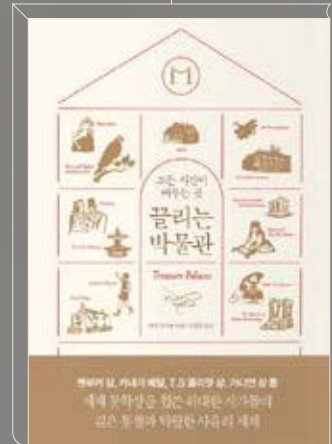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다이다.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는 전국적인 관광명소이다. 그런데 요즘 그보다 더 화제를 모으는 곳이 산복도로이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산업화의 길목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겪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집 지을 땅도 별로 없는 산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생겼고, 경사 급한 계단도 많이 생겼다. 그 산하리를 지나는 길이 부산의 산복도로이다. 도심과 산동네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복도로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특별한 길이다. 저자는 “부산 산복도로는 걸으면 걸을수록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한다. 산복도로와 이어진 곳들은 감천 문화마을을 비롯해 초량 이바구길, 168계단, 임시수도기념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최민식 갤러리, 천마산로 등이 있고 영도로 넘어가면 흰여울마을 등이 있다. 곳곳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지금의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부터 감동을 전하는 가슴 따뜻한 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곳이 아니라, 걸어봐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에 관한 책이다.



조선의 그림과 마음의 앙상블

유종인 지음 / 나남 / 348p / 2만 4천원

김홍도는, 신윤복은, 안견은, 조선시대 화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후세대까지 전해지는 걸작에는 붓을 들었던 사람의 뜨거운 열정과 혼이 담겼을 것이다. 그런 이의 마음이 배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품은 남고, 그 마음은 점차 잊혀졌다. 그 애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후세대의 평가로만 남아있다. 시, 시조, 미술평론으로 신촌문예에 각각 당선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유종인 시인이 조선 화가들의 마음을 불려왔다. 기존의 미술사나 사조, 기법 등의 딱딱한 이론으로 만나는 그림은 별 재미가 없다. 시인의 감수성으로 불려온 조선 화가들의 마음은 생생하게 다가온다.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그리고 쉽게 그 마음을 전해준다. 저자는 그림에 담긴 마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마음으로 그려냈는지 읽어낸다면 그림도 쉽게 헤아릴 수 있다고 덧붙인다. 조선의 그림에 담긴 마음은 화가가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픈 ‘사의(寫意)’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림에 담긴 화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겉만 훑힌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에 번지는 그림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이른다. 저자가 그 길을 안내해준다.



끌리는 박물관

매기 퍼거슨 지음 / 예경 / 320p / 1만 4천원

문화와 예술을 소수의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만이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문화생활의 지평이 넓어졌다. 미술관, 갤러리 등 전시 공간이 많이 생겼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무료나 할인된 관람료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생활 가까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도슨트, 강연,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한다.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 카페나 이벤트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낮아진 문턱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 책은 《이코노미스트》의 저자인 〈인텔리전트 라이프〉에 실렸던 ‘박물관의 저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맨부커 상, 카네기 메달, T.S 엘리엇 상, 가디언 상 등 세계 문학상을 휩쓴 24명의 작가들이 박물관에서 느낀 영감과 창작의 계기들을 깊은 통찰로 담아낸 글이다. 예술 작품을 보거나 박물관 안팎을 거닐 때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던 사람들, 영감을 얻어 다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을 녹이다

틴에이지, 민속 경연대회 2개 부문 금메달, 챔피언쉽 2개 부문 대상
심사위원 예술특별상, 심사위원 최고지휘자상 수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7월 14일부터 나흘간 열린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틴에이지, 민속 경연부문에 참가, 전 부문 최고점수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수상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중국 등 전 세계 15개국, 130개팀 5,000여 명이 참가, 전체 15개 부문 경연과 공연으로 펼쳐진 이번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전반부 경연에서 민속과 틴에이지 부문에 참가, 최고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수상했다. 각 경연부문 금메달 수상자들이 다시 실력을 가리는 챔피언쉽경연에서는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 개최 이래 처음으로 90점이 넘는 역대 대회 최고점의 기록을 세우며 심사위원,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국제심판원이 주는 3개의 상 중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합창단에게 주는 예술특별상과 최고지휘자상을 전 심판원 만장일치로 수상하며 이번 페스티벌에서 총 6개의 상을 휩쓸었다. 한편, 7월 17일 전체 5개팀이 진출한 그랑프리 무대에서 전체 대상은 미국의 성인혼성합창단인 포틀랜드 챔버콰이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건륜 수석지휘자는 “나흘간 계속된 힘든 일정 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준团员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심사위원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부산시립소년소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수상의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틴에이지 부문에서는 이견륜지휘자가 작곡한 ‘아리랑환타지’와 ‘글로리아’를, 민속 부문에서는 우리민요 ‘도라지’, ‘경복궁타령’, ‘추천가’를 불러 참가 합창단은 물론 객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기립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러시아 하바롭스크 ‘제12회 고려인 문화대축제’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열리는 ‘제12회 고려인 문화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8월 11일 러시아로 출국한다. ‘제12회 고려인 문화대축제’는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에 열리는 행사로, 올해 처음 축제에 참가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8월 12일 국립예술극장에 이어 13일 레

닌운동장 야외무대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즉흥성이 강한 기악곡인 시나위를 비롯해 흥겨운 민요메들리, 신명 넘치는 사물놀이 등을 통해 우리음악의 맛과 흥을 들려줄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발기인대회

11월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부산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올해 출범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발기인대회가 지난 6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3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렸던 '그라츠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관람 후 마련된 이번 발기인대회에서는 후원회 회원 40여 명이 참가, 후원회 설립결과보고 등 후원회 창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후

원회원들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앞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의 공연·전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진을 구성, 기금을 조성하고 10월경 이사회를 거쳐 11월 중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회원등급을 이사회원(300만원, 500만원 이상)과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들에게는 후원회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후원회는 창립 원년인 올해 이사회원 30명, 일반회원 100명 등 130여 명의 후원회원을 시작으로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그 대상과 금액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한국수력원자력(주)

그린어린이합창단 업무 협약식 개최

'문화소외 없는 부산'을 실현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재)부산문화회관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그린어린이합창단'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지난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예술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전하고자 창단한 '그린어린이합창단'은 부산광역시 구·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선발된 260여 명의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로 구성되었으며, 7월부터 매주 1회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

를 배울 수 있는 예술감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 멘토링을 통해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 나눔의 의미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로써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5개월의 교육과정이 끝나는 연말에는 합창무대를 마련,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부산예술중·고등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예술중·고등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3일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예술중·고등학교는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부산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개발하고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예술관람 저변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힘써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6월에도 브니엘예술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미래 관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마을버스 래핑홍보 공동진행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부산문화회관 정류소를 지나가는 마을버스 남구 9번에 래핑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래핑홍보는 광고를 출력하여 주로 대형 건물이나 차량에 씌우는 형태의 광고로,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광고효과가 크다. 마을버스 남구 9번은 문현동 경동아파트를 출발, 동명불원과 부산문화회관, 남구청, 그리고 종점인 용호동 마마빌라를 운행하는 버스로, 지난 4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존 노선이 변경되면서 부산문화회관 정류장이 새롭게 신설되기도 했다. 이번 래핑홍보에 따라 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세 기관을 알리는 홍보광고가 부착된 세 대의 마을버스가 현재 이 곳을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앞서 관람객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하철 대연역과 부산문화회관을 한 차례 오가던 셔틀버스를 공연 전 2회, 공연 종료 후 1회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시립박물관(유엔공원)'으로 표기되던 부산문화회관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시립박물관(유엔공원) · 부산문화회관'으로 변경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9월부터 유료화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해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에 동참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기존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9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한다.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인근 주민들의 무질서 주차 및 장기주차, 공사차량 주차 등으로 발생하는 공연 관람객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주차장 유료화 관련 시스템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8월 시범운행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주차료는 일반 및 공연관람객은 1일 정액 2천원, 월 정액 4만원, 아카데미 수강생은 1일 정액 1천원, 월 정액 1만원으로,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차량),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 다자녀가정 가족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장애인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중 시, 구, 군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에 한해서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면 VIP회원은 주차권 10매, 스페셜회원은 주차권 6매, 예술단회원은 주차권 4매가 무료로 지급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김경수

제42회 부산 동래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김경수가 전통예술의 솜씨를 뽐내는 '제42회 부산 동래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18일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열린 제42회 부산 동래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주관하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경연대회로, 경연은 일반부(전공자 포함)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문별 일반부 최우수상 3명이 실력을 겨뤘다.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받는다. 지난 1997년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바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피리연주자로 자리매김해온 김경수는 지난 2006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한 후 현재 창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로보카
폴리
에듀테인먼트



로보카폴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2017.9.13. ~ 12.31. 오전 11시,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어린이전용극장**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의 본격 공연관람기가 8월
호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6월 10일 발대식을 갖
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뜨거운 밤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를 대표하는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
이 있었다. 데얀 다식의 지휘 아래 현악기 주자들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와 슈트
라우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레퍼토리를 통해 부산을 찾았다. 1부 첫 곡 모차르트의 '아다지
오와 푸가 kv.546'의 아다지오는 밝고 경쾌한 시작이 아닌 단조의 어둡고 절망적인 시작이었고
데얀 다식의 지휘에서는 부드럽고 절제된 파위가 전해졌다. 곡에서 바흐가 들리는 것 같아 조사
해보니 모차르트가 바흐의 푸가와 대위법을 공부하며 푸가의 위대함을 느껴 만든 곡이라고
한다. 약간 생소했던 모차르트의 곡이 끝나고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BWV1042'가 시작되
었다.

솔리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씨였다. 금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그녀의 협주
곡 1악장은 첫인상과 걸맞게 화려하고 거침없는 파워풀한 연주였고 2악장 역시 곡에 내재된 슬
픔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듯 했다. 3악장은 1악장과 마찬가지로 밝고 힘찬 연주를 보여주었
다. 앙코르 곡으로는 비발디의 '사계', '여름' 중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을 묘사한 3악장이 준비되
었는데 시작되는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었던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부가 끝난 인터미션
에는 다음 프로그램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2부의 첫 시작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3번'이었다. 모차르트의 색깔이 묻어난 곡으로 밝고 경쾌한 음색 덕에 듣
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 곡은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페툼모빌레'로 오스트리아 축제의
유쾌하고 장난기가 넘쳤던 신나는 곡이었다.



정지은

www.instagram.com/la_yalse_

다음은 천둥과 번개 폴카였는데 이름에 걸맞게 천둥과 번개가 춤을 추는 듯한 리듬이 정확히
전달되었고 꼭 물방울이 통통 튀는 것만 같았다. 중간에 약간의 프로그램 변경이 있었는데 오
스트리아의 작곡가 샤우를러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곡들을 메들리로 편곡한 'Greetings from
Austria'가 추가되었다. 슈트라우스 2세, 모차르트, 로저스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들이 연결되어
나오니 괜스레 반갑기도 했고 다시 한 번 오스트리아가 음악의 고장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가 전해주는 어떤 여운

마지막에는 단원들이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퇴장하는 신선한 모습에 다시금 놀랐고 뜨거운 박수갈채로 앙코르 곡이 연주되었다. 피치카토로 계속되는 연주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트렸고 후에는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앞에서 한껏 들떴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언제 들어도 몽클한 우리나라의 정서가 깃든 아리랑을 먼 오스트리아의 지휘자와 단원들이 연주하는 것을 보니 감동이 두 배가 되었다. 아리랑에 흥뻑 젖어 있을 때 '라데츠키 행진곡'이 시작되며 지휘자는 단원들뿐만 아니라 박수로 관객 역시 지휘했다. 여태 많은 공연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연주는 오랜만이었다. 데안 다식과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관객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행복한 연주였고 공연이 끝나자 연주만큼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퇴장하고 나서도 식지 않은 열기가 무대를 꽉 채운 듯 텅 빈 공연장을 따뜻하게 보며 발걸음을 땀다.



처음으로 혼자 관람한 내 생애 첫 오페라

그라츠,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가본 적 없다. 그런데도 언젠가 오스트리아에 닿게 된다면 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라츠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팀의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떠올렸던 생각이다.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었다. 이들은 2003년에 창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왔다고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 위주로 공연이 이뤄졌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공연의 감동을 더했다. 가장 인상깊었던 건 안젤름 샤우플러의 편곡이었다. 'Greetings from Austria'라는 제목으로 슈트라우스와 슈트루츠, 모차르트, 로저스의 곡을 적절히 섞었다. 특히 왈츠와 폴카의 리듬이 담긴 곡들은 관객들을 들쭉

SNS 서포터즈 첫 공연이었던 '노자와 베토벤_히로애락(6월 10일)'은 나의 컨디션 조절 실패로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공연인 '마티네 웰빙 콘서트'는 공연 10분 전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다. 또한 내가 아직 클래식 장르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공연이 10분, 20분 이렇게 흐를수록 작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관중을 휘어잡는 압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공연에도 이렇게 매료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던 것 같다.

슈트라우스라는 음악가는 금시초문이었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애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 마지막 테너 한 분과 소프라노 두 분이 삼중창 하는 모습과 그 울림의 감동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특히 '헌정'이란 '사랑'이라는 두 곡은 아직도 내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다. 연극공연 위주로 관람했었지만 이번 첫 오페라 작품성과 무대장악 및 압도력이 나에게게는 크게 와 닿아서 앞으로 오페라나 클래식 종류의 공연을 계속 찾지 않을까 싶다.

전보배 www.instagram.com/ryul_bobae

이게 했다. 러닝타임 내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 이번 공연은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게 만들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자주 본 적 없지만, 앵콜이 이토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지휘자 데안 다식의 위트는 공연의 묘미였다. 공연 도중에 손목을 가리키며 시간이 없어 가보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단원들을 데리고 가버리는가 하면, 관객에게 박수를 유도하며 무대를 완성해나갔다. 숨죽이며 고요했던 공연장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마지막에 그들은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했다. 아리랑을 연주하는 오스트리아 사람들, 우리는 웃음을 멈추고 가만히 우리의 음악에 집중했다. 여운에 잠길 수 있었던 시간, 가만히 있어도 좋은 날. 앞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찾아 보려다닐 것 같다. 그때마다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가 건넨 여운을 또 한번 느끼고 싶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 입 신 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 문 신 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수 령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매 후 가상계좌입금(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VIP



연 회 비 1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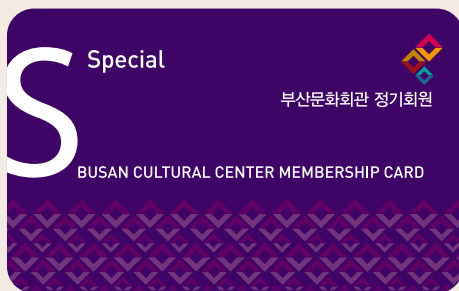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SPECIAL



연 회 비 5만 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MEMBER



연 회 비 3만 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국단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7년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 연주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권 좌석은 S석 기준에 한함.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초청공연

🕒 5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6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협주곡 마장조 BWV1042
요한 슈트라우스 2세/페르페툼 모빌레 등

- 지휘/대안 다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연주/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8월 8일(화) 오후 3:00, 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슈즈 대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전혀 다른 정통 발레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월 14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힌데미트/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 Op.47
슈트라우스/영웅의 생애, Op.40

- 지휘/요엘 레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미도리
- 연주/KBS교향악단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즈'

🕒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Op. 34
피아졸라/천사의 밀롱가, 천사의 죽음 외
● 바이올린/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 비올라/페터 사가이썬
- 첼로/마이클 윌리엄스
- 클라리넷/헬무트 회들
- 바순/비앙카 슈스터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TWV51:G9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BWV971

- 지휘/타케하루 노부하라
- 연주/텔레만 실내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BNK부산은행조은극장
공연관람료 10~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T. 1588-2757

공간소극장
공연관람료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T. 611-8518

필하모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8-2592

모차르트
음료 10% 할인 ※ 식사 등 제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물회품은보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석포로 116
T. 612-5820

드레스ARIA
대여 및 판매 3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9
T. 515-5796

안경나라(동래점)
전 상품 20% 할인 ※ 일부품목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동래구 충렬대로 110
T. 505-8987

노벨안경콘택트
전 상품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T. 626-8263

여우 헤어스토리
현금 20%, 카드 10% 할인 ※ 커트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중구 흑교로 16-1
T. 243-0609

대보당한의원
진료비 15% 할인 ※ 비보험진료(당약, 봉침 등) 진료비, 청정한약 다이어트(홍보단 제외), 공진당, 경육고 등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골든테마길 14
T. 412-7513

희망클리닉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누리빌딩 9층
T. 804-0999

알파신경외과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T. 807-0114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Season 2*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20 수 | 10.26 목 | 11.30 목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할인정보 30%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유료회원) • 단체 10인 이상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동생가족) • 모범납세자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 임산부(동반 1인 전회예매 시)

50% 장애인(1~3급, 동반 1인 / 4~6급, 본인) • 국가/ 독립 유공자 본인 •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학생 단체 20명 이상 1인 5,000원 • 3회 동시구매 30% 할인 • 2회 동시구매 20% 할인



11.11(토) PM 0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클래식, 철학을 듣다.

클래식, 철학을 듣다.

喜怒哀樂

예술감독 오충근 특별출연 최진석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히로애락

| 주 최 |



| 주 관 |



BNK

BNK 부산은행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 www.bscc.or.kr

[입장료] 전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박진아의

모래랑 빛이랑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 어린이들의 두뇌발달에 최고!

- 일 시 : 2017. 07. 07(금)~08. 27(일) ※월요일 휴관
- 장 소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체험회차 : 평 일 13:30/14:30/15:30/16:30 (평일오전은 단체예약에 한함)
주말 및 공휴일 10:30/11:10/11:50/13:30/14:30/15:30/16:30
- 입 장 료 : (할인가) 평 일 11,000원 / 주 말 13,000원
- 입장연령 :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 예 매 : 티몬 / 쿠팡 / 위메프
- 문 의 : 1899-8418
- 주 최 : (재)부산문화회관, 공감플러스프러덕션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2017년 8월 8일 [화] 15:00 & 8월 9일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주최 |  부산문화회관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 5세 이상 입장가능

삼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쟁대하소설,

삼포시대

THREE
PORTS
TIME

일본의 국가체제를 정립한 쇼토쿠 태자는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씨 뿌린 사생아,
일찍이 한국의 우수한 문명은
포구를 통해 일본에 문화의 꽃을 피웠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한일관계의 비밀을
역사의 문풍지 틈새로 살짝 엿본다



총 8권 · 지은이 문성근

현재 1~5권 발행
6~8권 - 9월 말 발행 예정
구입문의 | 효민디앤피(051-807-5100) · 전국유명서점



TRISHA
WEDDING JEWELRY



다이아몬드 특가전 2017. 7. 28 (금) ~ 2017. 8. 27 (일)

본점 051) 631-6688 | 센텀점 051) 747-9006



BNK 부산은행 창립50주년

50년의 믿음, 100년의 약속

부산은행 50년 역사를 함께 쓴
고객 여러분의 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과 함께 더 큰 세계로,
고객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산은행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NK 부산은행



알티렌즈 아시아태평양 레퍼런스 닥터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Surgeon

스마일라식

누네빛안과의원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Chamber Hall Opening Festival

2017. 8.15^{TUE} ▶ 8.29^{TUE}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15(TUE)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6(WED)
부산아카데미앙상블(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7(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

18(FRI)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19(SAT)
비르투오조앙상블 '브람스의 회상'

20(SUN)
부산플루트앙상블

22(TUE)
앙상블코스모폴리탄 '바흐, 그리고 텔레만'



25(FRI)
정두환의 토크콘서트

26(SAT)
이성주의 바로크 리플렉션

28(MON)
원스트링챔버

29(TUE)
코리안 슬로이스츠

